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차**
오

2017. MAY + JUNE



05/06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 월트 다즈니(Walt Disney)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05 + 06



발행일 2017년 5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원장
- 08 파워인터뷰
오킴스 법률사무소 김용범 변호사
- 12 SPECIAL REPORT
(1)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현장
(2)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공청회
(3)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언
- 28 통계로 보는 2017학년도 합격자
- 30 행복로스쿨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진 학생
- 32 특별기고
머니투데이 더엘팀 유동주 기자
법률사무소 JT 문중탁 변호사
- 38 로스쿨 핫이슈
- 40 로스쿨 특파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치현 학생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한메 학생
- 44 로스쿨 생활백서
- 48 언론 속 로스쿨
- 52 건강 멘토링
- 54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62 문화가 산책
- 64 협의회 소식
- 65 BOOK
- 66 OUT CAMPUS / QUIZ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이 40명인 '소규모 로스쿨'에 속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의 로스쿨 중에서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로클릭)을 배출(정원 대비)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로 인해 건국대학교 법전문원은 '작지만 강한 로스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ditor. 박소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람을 향하는 법을 교육하고, 세상을 밝히는 법률 전문가 양성합니다.”



약 력

- 전공 상법
- 학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일본 東京大學 법학석사
일본 東京大學 법학박사
- 경력 現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現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대표
前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Q. 건국대학교 법전문원의 자부심은 무엇인가?

A. 소규모 로스쿨로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맞춤형 개별학습지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작년에 민법교수님으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원열 교수님과 이론에 밝은 서종희 교수님을 초빙하여 그간 부족하였던 민사법 분야를 보완한 것도 큰 자랑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학교법인과 대학본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건국대 법전문원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 '사람을 향하는 법'이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눈에 띈다. 사람을 향하는 법이란 무엇이고, 이 법교육 방식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A. 법은 인간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지만, 오히려 인간생활과 의식을 옥죄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형식적 틀에 얽매어서 그 취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의 본질적인 의미와 기능을 사람을 중심으로 발견해 보고자 하는 의미이다.

Q. 건국대학교 법전문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정했다. 특별한 까닭이 있나?

A. 부동산은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곳'이면서도 투자 내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건전한 부동산 문화와 규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특히 부동산대학을 비롯한 클래식 500 등 건국대의 부동산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연계하여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관해 법학적인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특성화 관련 과목이 10과목 개설되어 있으며, 부동산 사법,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실무 과목의 경우 학생의 20% 이상이 수강할 만큼 인기가 높다. 또 현재까지 부동산·금융 관련 분야에 약 2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Q. 법전문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건국대 법전문원에서는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A. 실무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실제 법문서작성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시절부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오로지 본인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훈련, 모의재판 팀별 대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무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변호
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인식하에 법조윤리 과목의 운영에도 큰 관심
을 갖고 있다.

**Q. 법전원 운영에 따른 재정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비용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학교 자체적인 기금의 조성이 기본적으로 있
어야 하는 부분이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장이라는 공적 개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국
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전원 자체의 로펌설립 허가 등
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법전
원의 재정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장학금 혜택은?

A. 건국대 법전원은 사립대학교 법전원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등록금이 낮은 뿐만 아니라
실질적 장학금 지급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조
용호 헌법재판관, 박선주 변호사 등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금을 내는 선배 법조인들이
있어, 재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에 급여의 일정 부
분을 후배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정하는 재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Q. 지난달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됐
다.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A. 국민에게 저비용·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법전원의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기본
적으로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소양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변호사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업계
가 무한경쟁의 장으로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



유를 되묻고 싶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서는 응시자 대비 60%, 입학정원 대비 75% 수
준의 합격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한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 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
려면 교수, 학생, 학교가 삼위 일체되어 학생에
대한 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지도가 교수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학교가 행정적으
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시 '소통'과 '통섭'이다.
다행히 건대 법전원은 세 주체가 조화롭게 협
조·기능하고 있어서 원장으로서 특별히 어려
움은 없다. 다만 학교의 지원이나 교수님들의
열정에 비해 교육면에서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서 원장으로서 구성원에게 미안함이 더 크다.

**Q. 한국경제법학회 제9대 신임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서의 역
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경제법학회는 197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유
수의 학회인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

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 경제법학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경제 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는 경제법분야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학회가 그간 축적해 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
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온건한
법치국가의 확립을 위해 법전원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학교생활에서부터 원칙을 준수하는 의식의 함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일부이지만 학생들 중에는 오로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경
우가 종종 있는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라면 원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이것이 길게
보면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Q.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크게 성공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시절부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오로지 본인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
라는 점이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루는 성공은 사회적으로 흥기가 될 수도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배
려가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창**

강남대로 한복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독특한 형태의 사무소를 열었다. 단순히 법률자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자문과 사업개발 자문까지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가 컨셉인 곳. 그 중심에 김용범 변호사가 있다. editor. 박소희



오킴스 법률사무소 김용범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부터 행정,
비즈니스까지 가치 있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전문가가 목표”**

Q.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다. 치과의사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인가?

A. 연세대학교 치의예과에 합격하였으나 그곳에 진학할 생각은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어쩌다보니 치과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웃음). 입시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돌이켜 보면 다 추억인 듯하다.

Q. 치과의사의 삶도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데, 굳이 법조인이 되고자 한 이유가 있다면?

A. 너무 많이 받은 질문이다(웃음). 예전에는 이 질문에 나름대로 멋지게 답을 하려고만 노력했었다. 그런데 솔직하고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그냥 마음가는대로 하다보니 변호사가 된 것 같다.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진 “확장성”이라는 장점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치과의사의 삶과 변호사로서의 삶을 비교하거나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사회에서 조금씩 나만의 위치와 역할을

오킴스는 ‘헬스케어(Healthcare)’, ‘레저(Leisure)’, ‘ICT’ 분야에 특화된 산업기반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이 세가지 산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심판, 민사, 형사, 가처분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있고,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열심히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된 것 같다. 치과의사라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국가 보건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로사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으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기반이 되는 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 치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아닐 뿐이지, 의학 지식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Q. 의학지식은 변호사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나?

A.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전문지식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활용해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감사하게도 내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좋게 평가되어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와 주신다.

최근 들어 국내의 의료인들(치과의사 등), 우수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의료기기 회사에 법률뿐만 아니라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도 제공해드리는 등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일들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아무래도 같은 업계에 종사했었고, 그쪽 산업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분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닐까 싶다.

Q.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오킴스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오킴스의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

A. 오킴스는 ‘헬스케어(Healthcare)’, ‘레저(Leisure)’, ‘ICT’ 분야에 특화된 산업기반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이 세가지 산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심판, 민사, 형사, 가처분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있고,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등 의료기관, 레저 및 ICT 관련 벤처기업 등을 주요 고객 군으로 하고 있고, 산업 전문가 2인을 영입하여 해당 산업에 특화된 법률 및 행정(RA), 재무, 경영, 투자·사업 중개서비스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기업 회계감사 및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회계사 두 명을 전문가로 영입하였다.

Q. 포화된 업계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개업을 선택한 까닭은?

A. 본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만 하겠다’고 고집하면 당연히 시장이 포화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포화되지 않은 시장이 어디 있는가.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

큰 욕심일 수 있지만 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산업 전문가(Industrial Expert)”가 되고 싶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법률부터 행정, 비즈니스까지 가치 있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고 싶고 그에 부합하는 실력도 함께 겸비하기를 희망한다.

사, 회계사 등 포화되지 않은 시장은 없다. 요즘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치열하게 살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규모도 작지만, 오직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강점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개업을 하게 되었다.

Q.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A.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고객’은 없고 ‘환자’만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의료인으로서도 더 인정받고 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이라는 점을 스스로 납득하고 인정한 것이다. 우리 젊은 변호사들도 ‘그래도 내가 변호사인데’라는 뻔뻔함보다는 서비스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의 법률 서비스를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단순히 단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돌려주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고객이 법률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를 안 좋게 만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킴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단순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재무자문(FAS) 및 사업개발 자문까지도 제공하게 된 것이다.

Q. 오킴스의 궁극적인 목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A.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최고의 “산업 전문가”가 되어서 의뢰인을 위한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외부인으로서 훈수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문가로서 깊이 있고 실질적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재무, 사업개발’을 망라한 산업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보통은 클라이언트들이 비즈니스 자문은 컨설턴트에게, 세무 자문은 세무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맡긴다. 이렇게 나눠서 의뢰를 하다 보면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서비스의 내용보다 청구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킴스는 이런 모든 자문을 한 곳으로 모아 해결하는 곳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구성원들도 변호사이면서 회계사, 치과 의사 등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이다.

두 번째는 오킴스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중에서 선두그룹으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기성 법조인과 달리 법률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종합 자문

을 제공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고, 규모도 현재 전문가 5명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전문가 10명 이상의 사무소로 성장시키고 싶다.

Q. 훗날 개인 법률사무소 혹은 공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A. 후배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우선 창업은 장난이 아니다. 법조인으로서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법률 사무소를 오픈해서 유지하는 비즈니스 또한 쉽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진지한 일이므로 치열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랜 시간 고민을 할수록 길이 보일 것이다. 흔히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젊었을 때 막무가내로 덤벼다가 실패를 하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가급적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에 작은 성과를 목표로 하면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고민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면, 과감하게 실행하기를 권한다.

두 번째는 ‘신뢰’를 얻는 것에 대한 조언이다. 위에서 작은 성과를 목표로 하라는 조언을 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법조인에게 성공이란 자신이 소속된 곳이 어디든 간에 소속원, 의뢰인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어린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업을 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경험’에 대한 조언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형 로펌처럼 누가 보더라도 신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있으나, 그러한 기회는 제한적이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멘토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길 바란다. 그리고 조금 과장을 하자면, 900억원 규모의 소송이나 9,000만원 규모의 소송이나 난이도는 비슷한 경우도 많다. 작은 규모의 사건이라도 두루 두루 경험해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권한다.

Q.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A. 큰 욕심일 수 있지만 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산업 전문가(Industrial Expert)”가 되고 싶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법률부터 행정, 비즈니스까지 가치 있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고 싶고 그에 부합하는 실력도 함께 겸비하기를 희망한다. **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4일(화)부터 5월 25일(목)까지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설명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올해는 기존 11개 대학에서 14개 대학으로 개최장소를 확대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 설명회 현장

일 정	시 간	장 소	지 역
4월 4일(화)	14:00~16:00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백양누리 B1층)	서울
4월 6일(목)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1층)	부산
4월 11일(화)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대회의실(1층)	서울
4월 13일(목)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6호)	경북
4월 18일(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5층)	서울
4월 19일(목)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1층)	서울
4월 25일(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	전남/광주
4월 27일(목)		아주대학교 다산관 강당(B1층)	경기
5월 10일(수)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1층)	대전
5월 11일(목)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산관학협의회실(1층)	광주
5월 16일(화)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511호)	서울
5월 17일(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5층)	전북
5월 18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제주
5월 25일(목)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1층)	전북



여기서 잠깐!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전문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법전문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된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는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수 백 명이 들어가는 대형 규모의 강의실이 가득찼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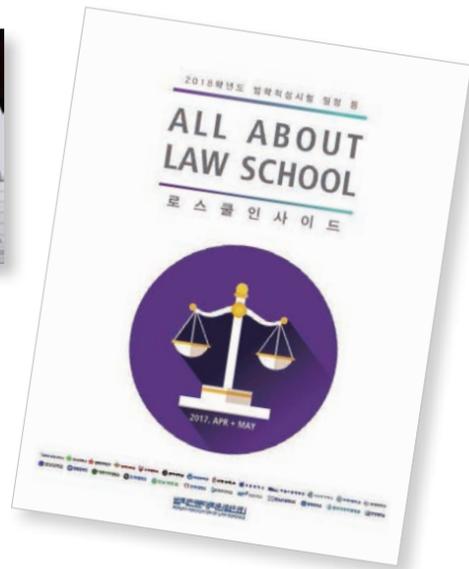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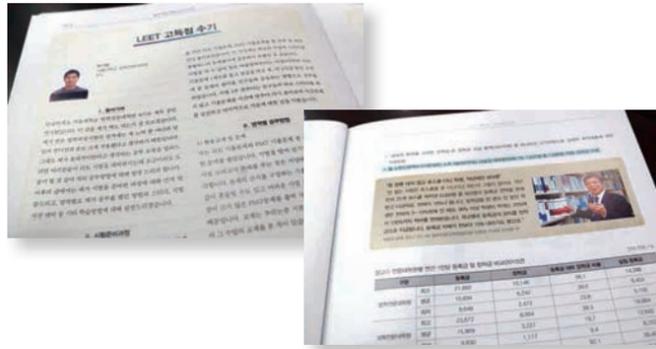
설명회는 크게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및 입학전형 소개', '법학적성시험 소개', '시험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 안내'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순서에서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제도(등록금, 장학금 제도, 특별전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소개'에서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문제지와 답안지의 크기, 2019학년도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설명회의 핵심인 시험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순서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영역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h4>법학전문대학원 현황 및 입학전형 소개</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학전문대학원 개요 2. 교육과정 소개 3. 등록금과 장학금 4. 특별전형제도 5. 지역균형인재선발 6. 변호사시험 7. 졸업생 사회 진출 8. 통계자료
	<h4>법학적성시험(LEET) 소개</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 개요 2. 시험 일정 3. 응시료 / 시험 시간 4.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5. 원서접수 방법 6. 문제지 / 답안지 사이즈 7. 성적 발표
	<h4>시험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 안내</h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학적성시험의 목적 및 성격 2. 언어이해 영역 3. 추리논증 영역 4. 논술 영역 5. 법학적성시험 개선 계획

전국순회설명회 당일 배포된 설명회 책자와 동영상 파일은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 이모저모



현장 mini 인터뷰

<p>학생 A</p> 	<p>Q. 설명회에는 어떻게 참석하게 됐나요?</p> <p>A.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요. 4학년 2학기 때 우연히 민법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고 적성을 찾은 느낌(?)이었거든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점수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웃음). 이번 설명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p> <p>Q. 설명회가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p> <p>A. 사실 리트는 법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감이 왔습니다. 또 로스쿨에 진학해야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p>
<p>학부모 B 어머니</p> 	<p>Q. 리트 설명회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p> <p>A.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보게 됐어요. 아들이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몰래 한 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웃음).</p> <p>Q.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셨는지요?</p> <p>A. 드라마 보면 10년씩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고시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사법시험이 없어져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테지만, 아무래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니까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p> <p>Q. 설명회는 어떻게 보셨나요?</p> <p>A. 리트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명회인거 같아요. 아들이 와서 들었더라면 리트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또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p>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 일정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8월 27일(일)에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7월 4일(화)부터 13일(목)까지 시험을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 자	주요내용	비 고
2017.3.2.(목)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17.7.4.(화) ~ 7.13(목) 18:00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7.8.8.(화) ~ 8.27(일)	수험표 교부	시험당일 지참
2017.8.27(일)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7.9.19.(화)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2017.9.22.(금) ~ 9.23(토)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2017.10.10.(화) ~ 10.13(금)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18년 시행)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2018년 2월 공지)

지난 4월 21일(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2호(국제회의실)에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변시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 이수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법전문장이 로스쿨의 안착과 정상화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 시험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공청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일 시 : 2017년 4월 21일(금) 15:00~17:30
장 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국제회의실)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제 김인재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변시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 이수제 도입’을 제안한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은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정할 수 있으며, 전문법률 과목은 그 영역과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넓어서 시험제도에 포괄하기 어려우며 또 전문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은 좁은 의미의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영역에 대한 지식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시험제도에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I.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시험과 교육 실태

■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체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1회	응시자 (비율)	1,665 (100)	94 (5.65)	413 (24.80)	516 (30.99)	59 (3.54)	82 (4.92)	228 (13.69)	273 (16.4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71 (75.53)	346 (83.78)	453 (87.79)	54 (91.53)	77 (93.90)	210 (92.11)	240 (87.91)
2회	응시자 (비율)	2,046 (100)	59 (2.88)	805 (39.35)	405 (19.79)	45 (2.20)	88 (4.30)	285 (13.93)	359 (17.55)
	합격자 (합격률)	1,538 (75.17)	38 (64.41)	584 (72.55)	296 (73.09)	36 (80.00)	76 (86.36)	222 (77.89)	286 (79.67)
3회	응시자 (비율)	2,292 (100)	63 (2.75)	1,032 (45.03)	359 (15.66)	33 (1.44)	61 (2.66)	225 (9.82)	519 (22.64)
	합격자 (합격률)	1,550 (67.63)	37 (58.73)	669 (64.83)	240 (66.85)	25 (75.76)	41 (67.21)	163 (72.44)	375 (72.25)
4회	응시자 (비율)	2,561 (100)	64 (2.50)	1,116 (43.58)	319 (12.45)	49 (1.91)	52 (2.03)	192 (7.50)	769 (30.03)
	합격자 (합격률)	1,565 (61.10)	35 (54.68)	631 (56.54)	197 (61.75)	32 (65.30)	32 (61.53)	131 (68.22)	507 (65.92)
5회	응시자 (비율)	2,864 (100)	95 (3.32)	1,240 (43.30)	405 (14.14)	57 (1.99)	73 (2.55)	199 (6.95)	795 (27.76)
	합격자 (합격률)	1,581 (55.20)	46 (48.42)	625 (50.40)	248 (61.23)	38 (66.67)	44 (60.27)	111 (55.78)	469 (58.99)

※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많은 응시자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했지만 그 비율의 합은 41.2% 정도였다. 제4회,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두 과목의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73.61%와 71.06%를 점하고 있다.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 시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는 시험, 즉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학습·수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결정과 기본법률 과목의 과도한 시험 부담으로 인한 변호사시험의 선별시험화와 그로 인한 법전문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결정과정에서 예견되었다.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응시자	1,665명	2,046명	2,292명	2,561명	2,864명	3,110명
합격자 (응시자 기준)	1,451명 (87.15%)	1,538명 (75.17%)	1,550명 (67.63%)	1,565명 (61.11%)	1,581명 (55.20%)	1,600명 (51.44%)

- 법전문에서의 특성화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시 선택과목의 응시와 법전문원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I.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시험방법의 간소화

- 변시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문법률 과목의 불충실한 교육 실태라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통한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변시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변시법 제8조 제3항과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4항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변시에서 선택과목의 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을 간소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형 시험을 폐지하거나 또는 법조윤리 과목과 같이 별도의 검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기록형 시험의 실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안: 전문법률 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 도입

-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법률 과목을 분야별 또는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법전문 3년 교육과정 중에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학위수여 요건 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법가)



“변시 선택과목 실시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전문법률분야 최저학점 이수’ 방안에서 ‘일정한 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이 김인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변시와, 법전문원 제도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우선 3년의 교육과정 기간 중, 기본이 되는 7법을 학습하는 절대적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전문법률 분야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를 원생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꼴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논의도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제해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김인재 원

장님의 발제문 곳곳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변시는 법전문원을 사법시험 하의 고시학원과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다. 졸업생들도 재학생들도 쉽게 공부해서, 쉽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얼마나 많은 분량이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수준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

토론 임순현 기자 (연합뉴스)



“특성화 교육 형해화의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에 주력하는 법전문원 교육 정책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법전문원의 평가가 좌우되는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특성화 과목을 앞세운 법전문원 특화 교육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법전문원은 특성화 과목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정했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자연스럽게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선택과목 시험 폐지에 앞서 법전문원의 특성화 교육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이 법전문원 학생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적당하지 않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지 폐지할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평가시험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 교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토론 홍석모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국제거래법의 경우 법전으로 보면 25쪽 정도 된다. 조세법의 경우 700쪽, 노동법의 경우 300쪽 정도 된다. 학생들이 실무에 진출하여 국제거래법 관련 분쟁을 다루게 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43%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문제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선택과목 시험은 변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힘들게 치러야 하는데, 약간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선택과목 과락으로 변시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꽤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과목 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학생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택과목 폐지에 찬성한다. 하지만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여 그 분야의 과목을 집중해서 듣게 하기 보다는, 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과목 중에서 분야에 관계없이 4과목 이상을 듣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택과목 시험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가'에 치중하고 있지, '사회적 수요'나 '법률 시장에 나가서 어떤 전문 법률가가 될 것인가'와는 동떨어진 시험 제도가 되고 있다.

선택과목 시험을 이수제로 변경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3과목 정도만 들으면 인정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또 7가지 과목의 시험이지만, 금융법 등의 분야도 얼마든지 선택과목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본다. 일정한 과목의 이수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종합토론 김창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학점이수 방식에 찬성한다. 선택과목 시험은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난다.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 지적재산권법은 선택하기 힘들어 한다.

개인적으로는 학점 이수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몇 과목을 한정해놓고 '이 과목을 이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금융법, 의료법 등 중요한 분야들이 많지만,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느라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다. 홍석모 원장님 말씀대로 20~30가지 과목을 전문법률 과목으로 정해놓고, 그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4개 정도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폭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인재 원장님의 발표와 토론자 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원장님들께서 같은 생각일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처음부터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로스쿨을 설립할 때 취지가 무엇이었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통한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시절 노동법 강의를 할 때에는 노동법 배경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시절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졌고, 학생

들의 수험 부담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수업 부담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학점을 어느 등급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락을 맞지 않는 이상, 즉 '몇 학점 몇 과목 이상 이수'하면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과목들이 특성화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12과목 정도가 된다. 12과목 중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이는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과목들을 시험 대신 과목으로 이수하게 한다면, 충분히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부산대 법전원 교수님들에게 의견을 받았다. 큰 방향에서 시험을 폐지하고, 과목 이수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없었다. 오히려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현 상태로는 시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논의가 빠른 시일 내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과목 이수제로 했을 때 '전문 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내 생각에는 전문 과목을 다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협의회에서 전문 과목에 대한 공동 기준을 정하고, 그 공동 기준 하에서 5-6개 과목 정도를 학교에서 전문 과목으로 선택하면, 학생들이 3과목 정도 이수하면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요건은 B학점 이상이라는 등의 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하고, 학교에서 학점이수를 통해서 인정하지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개선과 보완을 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수업 이수율과 더불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선택하면 노동법과 관련된 실습을 하고, '환경법'을 선택한 학생은 환경관련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무가 합쳐져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사법시험과 차별화된다고 느낄 것이고, 무엇보다 로스쿨의 취지인 '교육을 통한 양성'에 보다 더 접근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종합토론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화와 특성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에 응시했다고 전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박철 변호사가 이야기 한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3년을 다니면서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선택과목을 학점 이수제로 바꾼다고 해서 전문화가 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요즘은 학생들이 2학년 겨울 방학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 즉 로스쿨 3년 중에서 1년 동안을 변호사시험을 위해 투입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지금, 특성화에서 더 강화된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기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현/민/형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동법이든 의료법이든 다양한 수업을 듣고 법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문제를 '전문성 강화'라고 하면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선택과목 시험 대신에 학교에서 과목 수강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룹핑(Grouping)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이면 '노동법'으로 못 박지 말고, 노동법과 연관된 사회법, 사회노동법, 복지법 등 다양한 과목들을 그룹핑 해 두고, 학생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식이다.

종합토론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공청회에 참석하기 전에 교내 교수님 11분에게 답을 받았는데, 10분은 이수제에 찬성하고, 다른 한분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때 수강해서 P/F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주셨다. 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현/민/형 기본 과목을 포함해서 실무 기본 과목 등을 포함해 90학점 이상을 들어야 졸업 이수학점이 된다. 선택과목 수업을 듣지 않는 까닭은 시험 보는 데 여차피 크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이수제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법 과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전문화가 법전문 교육에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학생들이 향후 전문 과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여러 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수를 줄이고 기록형도 없애지 않는 이상, 오히려 과목 이수제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만만 야기할 것이다. 선택과목의 경우 방학 때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과 불만만 커질 것이다.

종합토론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기 때문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점 이수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선택과목 시험과 특성화를 연계시켜서 총 이수 학점의 1/3 이상을 이수 하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약간의 부담은 있겠지만 특성화 과목과 전문법률과목이 제대로 이수되어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목을 개선할지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 입학 목적이 변호사가 되기 위함이고, 변호사시험 합격이 최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연 선택과목을 시험으로 놔둔 채 지금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폐지를 하고 교육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때이다.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방법도 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또 기본 교과목의 표준화 등은 자격시험화로 가기 위한 단계이므로 보완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오식 원장님의 사회, 김인재 원장님의 발제, 홍석모 원장님, 박철 변호사, 임순현 기자님 모두 토론을 아주 잘 해주셨고, 원장님들의 열띤 토론도 감사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오늘의 토론을 바탕으로 선택과목을 시험으로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수제로 갈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또 이수제가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바람직한 방향을 건의하고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시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로스쿨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공청회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info.lee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선발시험으로 운용되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며,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응시자의 60% 이상이 합격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금)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응시자 대비 51.45%(1,600명)에 그쳤다. 법무부 변시관리위원회의 합격자 결정은 변호사 수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전국 법전문장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부가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 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안

1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은 **법률가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갖춘 것이 입증된 사람을 탈락시키는 시험이어서는 안 될**

- 현재 합격자 결정 : 정원제 방식 ⇒ 자격시험으로 운영전환 ⇒ 로스쿨 안착 기여

로스쿨제도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또 다시 변시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변호사시험법」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항에 의하면, 시험의 합격은 **법전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 연도별 변호사시험 응시, 합격 현황

구분	응시자 (전년대비 증가)	합격자(응시자 기준) (전년대비 증가)	불합격자 (전년대비 증가)	합격기준점수 (1,660 만점)
제1회	1,665명	1,451명(87.15%)	214명(12.85%)	720.46점
제2회	2,046명 (+381명)	1,538명(75.17%) (+87명)	508명(24.83%) (+294명)	762.03점
제3회	2,292명 (+246명)	1,550명(67.63%) (+12명)	742명(32.37%) (+234명)	793.70점
제4회	2,561명 (+269명)	1,565명(61.11%) (+15명)	996명(38.89%) (+254명)	838.50점
제5회	2,864명 (+303명)	1,581명(55.20%) (+16명)	1,283명(44.80%) (+287명)	862.37점
제6회	3,110명 (+246명)	안) 1,866명(60.0%) (+285명)	1,244명(40.0%) (-39명)	-

3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

변시 합격률은 전년도 합격률, 응시생의 실력수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응시자대비 합격률 하락	○ 전년대비(16년 기준) 5.91% 하락 - 제1회 87.15% ⇒ 제5회 55.20% : 31.95% 하락
불합격자 대폭 증가	○ 전년대비(16년 기준) 287명 증가 - 제1회 214명 ⇒ 제5회 1,283명 : 1,069명(4.9배) 증가
응시생 실력수준	○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 매년 증가 - 제1회 21명 ⇒ 제5회 871명(41.4배) 증가 ○ 합격기준 점수 대폭 상승 - 제1회 720.46점 ⇒ 제5회 862.37점, 141.91점 상승
법조인 수급상황	○ 신규 법조인 배출수 감소(사법연수원 출신 포함) - 2012년 2,481명 ⇒ 2016년 1,881명, 600명(24.1%) 감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하락되고 있음(정원 통제수단 변질)
- 법전문 교육과정 연계 미흡, 중요판례보다 생소하고 지엽적인 판례 출제 지양
- 변호사시험 출제 시 난이도(지나친 긴 지문)를 높임으로써 응시자 대비 합격률 저하 의도 의혹 제기 (출제 범위 비공개)

4 응시자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 응시자대비 합격률 1회 87.15% ⇒ 5회 55.20%, 31.95% 급감

변시낭인 양산	법전문 교육과정 파행	종래 사법시험 폐단 재현	법전문 설립취지 변질
변시 과목에만 학업집중, 학교수업 참여저하	수험위주 교육, 특성화·선택과목 붕괴, 학사관리 강화방안 유지 불투명	시험만 열중, 사교육 열풍, 변시낭인 발생	설립취지 퇴색, 일본 로스쿨 실패 답습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에 어려움 초래

5 입학부터 졸업까지 법전문 교육의 질 제고

□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사관리 철저

- 법전문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정량평가 강화, LEET 개선)
- 상대평가 실시: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상향조정, 졸업시험 기준 강화 등

○ 2014학년도 입학생(6기) 2,072명 중 유급 72명, 미수로 88명으로 총 158명 탈락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을 통한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

- 2011년 연 1회 시행에서 2013년부터 연 3회 확대 실시
 - ※ 출제·시행경비 : 정부 예산지원 없이 25개 법전문원에서 경비를 분담
- 변호사시험에 준하는 출제합숙 (약 100여명), 시행 후 평가·강평지도 활용
- 법전문 졸업시험과 연계, 학사관리 강화에 기여
 - 졸업시험 탈락생은 매년 증가('11년 28명, '12년 40명, '13년 90명, '14년 88명)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보급, 강의자료 활용

▣ 법전문 실무역량 강화 등

- (리걸클리닉) 지역사회 법률서비스 제공, 공익사건의 발굴·수행, 학교별 특성화연계
- (실무수습)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법무법인, 기업 등 실습
- (경연대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특허법원 등 모의재판 참여
- (교재개발) 공법·형사법·민사법 선택형 및 사례형 교재개발, 보급

▣ 실무교수 1:1 개별지도, 튜터링제도 등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운영

▣ 로스쿨 교육여건 개선 등

- 학비부담 경감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대), 전용도서관, 기숙사 시설, 열람실(1인 1석) 확보, 교원확보를 학생 1인당 6.4명 수준 유지

6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전문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된 자는 변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로 신규 법조인 배출은 2012년 2,481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변시 합격자 수의 상향조정이 요청됨

- 2012년 2,481명(사1,030명 + 변1,451명) ⇒ 2016년 1,881명(사300명 + 변1,581명)

▣ 매년 변시응시자 대비 탈락자의 급증으로 인한 변시 낭인 양산의 해소

- 탈락자 1회 214명 ⇒ 5회 1,283명 : 1,069명 증가 (4.9배 증가)

▣ 조기 타종으로 인한 피해학생 구제 필요

- 한양대에서 응시한 수험생 중 조기타종으로 인해 협의회에 구제요청의견 제출 121명
- 변시관리위원회의 합격자결정 심의 시 합격자 기준점수 선정 후 조기타종 피해학생들에 대한 추가 합격처리 요청

▣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법전문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적정수준 이상 합격 보장으로 타 자격시험과 형평성 유지 필요함

- ※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 2017년도 응시자 대비 60% 수준의 합격률 보장 (1,866명 합격)

붙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참고자료

① 최근법조인 수급상황 추이

(단위: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	826	786	509	300	200	150	100	50	-
변호사 시험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866 (60.0)	1,866	1,866	1,866
	탈락자	214	508	742	996	1,283	1,244			
법조인 배출 계	2,481	2,364	2,336	2,074	1,881	2,066	2,016	1,966	1,916	

※ 1. 사시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배출이 병존하는 과도기는 지난, 사시 출신 법조인 배출 급감

2. 2017년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 예측 : 58%일 때 1,803명(+222명), 55%일 때 1,710명(+129명), 53%일 때 1,648명(+67명)

○ 최근 5년간 배출한 신규 법조인 수는 평균 2,200여명임

② 변호사시험 면과락자 현황

○ 제5회 시험의 면과락자이나 불합격자는 871명으로 제1회 21명보다 41.5배 증가함

(단위:명)

구분	응시 인원	합격 점수	과락		면과락자	합격인원	면과락이나 불합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1회	1,665	720.46	193	11.6%	1,472	1,451	21	0.1%
제2회	2,046	762.03	343	16.8%	1,703	1,538	165	8.1%
제3회	2,292	793.70	342	14.9%	1,950	1,550	400	17.5%
제4회	2,561	838.50	355	13.8%	2,206	1,565	641	25.0%
제5회	2,864	862.37	412	14.4%	2,452	1,581	871	30.4%
제6회	3,110							

③ 변호사시험 통계 관련 오류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법전문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 입학 후 3년 만에 바로 응시한 경우 초시로 분류하고, 이후 재시, 3시, 4시로 구분함
- 그러나 이 구분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 내 5회임에도 불구하고 휴학 등을 하는 경우 '6시, 7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함

〈예시〉 2014학년도 입학생(6기)의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년도	일반적 개념			법무부 개념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휴학 안함	1년 휴학	2년 휴학
출업년도	2017. 2	2018. 2	2019. 2	2017. 2	2018. 2	2019. 2
2017년	초시(1)	-	-	초시(1)	-	-
2018년	재시(2)	초시(1)	-	재시(2)	재시(1)	-
2019년	삼시(3)	재시(2)	초시(1)	삼시(3)	삼시(2)	삼시(1)
2020년	사시(4)	삼시(3)	재시(2)	사시(4)	사시(3)	사시(2)
2021년	오시(5)	사시(4)	삼시(3)	오시(5)	오시(4)	오시(3)
2022년		오시(5)	사시(4)		육시?(5)	육시?(4)
2023년			오시(5)			칠시?(5)

※ 1회~3회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했으나 4회 시험부터 법무부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이 소수만 증가하는 결과 초래

작년 8월 법학적성시험(LEET)을 시작으로 25개 법전원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전형이 진행됐다. 법전원에서는 LEET 성적을 비롯해 학부 성적, 논술 및 면접, 외국어능력, 경력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총 2,116명의 학생이 2017학년도 신입생으로 선발됐다.

통계로 보는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 총 합격자 수

2017학년도

2,116 명

2016학년도 2,117명

▶ 성별

- 남성 1,170명(55.29%)
- 여성 946명(44.71%)

▶ 자교 / 타교

- 자교 497명(23.49%)
- 타교 1,619명(76.51%)

▶ 법학 / 비법학

- 법학사 594명(28.07%)
- 비법학사 1,522명(71.93%)

▶ 최종학력별

-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102명(4.82%)
- 대학교 졸업자 1,034명(48.87%)
- 대학교 졸업예정자(2017년 2월) 980명(46.31%)

▶ 특별전형 입학생 수

128
(6.10%)
2013학년도

132
(6.37%)
2014학년도

133
(6.38%)
2015학년도

139
(6.57%)
2016학년도

139
(6.57%)
2017학년도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연령별

(단위:명, %)

구 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1	27	38	1.80
23세 ~ 25세	238	449	687	32.47
26세 ~ 28세	477	281	758	35.82
29세 ~ 31세	223	114	337	15.93
32세 ~ 34세	109	35	144	6.81
35세 ~ 40세	90	36	126	5.95
41세 이상	22	4	26	1.23
계	1,170	946	2,116	100

〈나이산출 : 2016-출생년도+1 또는 2017-출생년도〉

▶ 출신계열별

(단위:명, %)

구 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344	215	559	24	11	35	368	226	594	28.07
상경제열	261	176	437	28	9	37	289	185	474	22.40
사회계열	208	188	396	15	13	28	223	201	424	20.04
인문계열	127	198	325	8	11	19	135	209	344	16.26
공학계열	65	20	85	6	1	7	71	21	92	4.35
사범계열	26	32	58	1	3	4	27	35	62	2.93
자연계열	19	20	39	2	1	3	21	21	42	1.98
예체능계열	4	7	11	1	0	1	5	7	12	0.57
약학계열	4	7	11	0	0	0	4	7	11	0.52
의학계열	3	8	11	0	0	0	3	8	11	0.52
신학계열	2	2	4	0	1	1	2	3	5	0.24
농학계열	0	1	1	0	0	0	0	1	1	0.05
기 타	20	20	40	2	2	4	22	22	44	2.08
계	1,083	894	1,977	87	52	139	1,170	946	2,116	100

▶ 직업군

공무원 18명, 의료인(의사, 한의사 등) 5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사 16명, 변호사 7명, 노무사 5명의 전문자격 소지자도 확인되었다.
※ 직업 및 전문자격 소지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법학도 시절, 김우진 학생은 두꺼운 법학 서적을 읽는 시간보다 미술관과 영화관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졸업 후 입사한 예술의전당은 훌륭한 놀이터이자 최고의 직장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그는 불현듯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진학을 결심했다. editor. 박소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우진 학생

문화 · 예술계의 법률전문가를 꿈꾸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올 3월 건국대학교 법전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김우진입니다. 혹시 사진을 먼저 보시고 “신입생 맞아?”하고 가우똥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법전원협의회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입학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는(웃음).

Q 학부 시절에 법학을 전공한 이후, 계속 법조인을 꿈 꾸 건가요?

A 지금 돌이켜 보면 딱히 뚜렷한 목표가 있었거나 범 조계에 비전이 있었다기보다는 고등학교때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대를 목표로 하는 막연한 풍조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시절에 그다지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착실히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설이나 영화같은 엔터테인먼트에 심취해서 보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사법시험에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았지만 노력이 부족했는지 2차에서 고배를 들고 말았습니다.



Q 졸업 후 직장생활은 어디서 했나요?

A 군 제대 후 취직을 결심하고 한창 진로를 탐색하고 있던 와중에 예술의전당 신입사원 공채공지가 뜬 걸 보고는, 기관성격과 무관해 보이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오히려 이런 곳이 제 적성에 맞는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입사 후에 짧은 인턴과정을 거치고 로스쿨 진학을 위해 휴직을 할 때까지 근 십년이 넘게 예술의 전당의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연제작, 콘서트기획, 기관과 프로그램 홍보, 제도규정담당, 경영평가업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협력업무, 공연장 대관업무까지. 로스쿨 진학 전 마지막 업무는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대관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연출가, 배우들과 함께 몇 달씩 준비한 공연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Q 법전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말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중 화재가 발생해서 극장이 전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연계에서도 기억될 만한 대사건이었는데요. 화재 이후로 예술의전당에 법률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문제, 공연장을 새로 짓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업체들과의 수많은 계약건 등이 그 예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기구에서 거의 1인 법무팀을 맡아 수년간 밤을 세워가며 다양한 소송사건에서 회사입장을 정리하고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기관에서도 꼭 사내변호사가 필요하겠구나!” 그 뒤로 기관이 정상화 되고 늘 즐겁게 업무에 매진했지만,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과 앞으로 문화예술계에서의 법률수요에 대한 확신이 등을 밀어주었고, 지금 이렇게 건국대학교 법전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Q 법전원에 입학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감회는 어떤가요?

A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즐거움, 다양한 전공과 개성을 가진 동료 원생들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큼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법전원 과정이 요구하는 막대한 공부량을 소화하려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법전원에 진학해서 3년만 시간을 보내면 쉽게 변호사가 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벌써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Q 졸업 후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기꺼이 진학을 지원해준 예술의전당으로 돌아가 사내변호사로서 한층 합리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문화예술기관들에 법률적 지원을 하면서 졸업 이후의 진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민인 것은 아직 문화예술계 안에서 법률전문가가 가야할 길에 대한 참고할만한 확립된 롤모델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제가는 길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뒤에 올 후배들을 위해 이정표를 세우는 마음으로 한발자국이라도 더 내딛어 보고자 합니다. **창**

김우진 학생이 알려주는 비법 직장인 수험생을 위한 로스쿨 입학 노하우!

“시험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 언어이해 :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와의 차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추리논증: 논리학 문제, 논증 문제, 수리추리, 논리게임 문제 모두 풀이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트시험 이후에도 너무 긴장을 풀지 말고 지방학교의 양식에 맞춰 자소서를 여러 번 고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면접의 경우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면서 차분히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변호사의 생존전략은 '홍보'

머니투데이 더엘(theL) 팀장
유동주 기자(변호사)

변호사는 '사업자'다

법조윤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변호사는 ‘상인’인가”라는 물음에는 ‘아니오’가 정답이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현실에선 ‘법률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다. 개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인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고용된 변호사도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법조윤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인’이라는 의식을 갖지는 말고 ‘공적임무’를 먼저 생각하라는 일종의 가르침일 뿐이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업이라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다.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그간의 관습적 법조윤리 탓인지, 변호사 ‘광고’는 수십 년간 사실상 막혀 있었다. 변호사 광고규정은 ‘허용’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위한 규정이었다.

광고규제 완화는 신규 변호사들에겐 ‘기회’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넘어 수년 내 3만명에 도달한다. 변호사가 급증하자 광고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변협도 다양한 광고기법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움직이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광고도 허락됐다. 불과 작년 법조윤리시험에서 아마 전동차와 버스 내부 광고는 위법이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었을 것이다.

전보다 더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정만 한다면 이미 ‘과거’형 변호사다. ‘미래’형 변호사라면 새로운 무기가 가능해졌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변호사 광고를 대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의뢰인만 골라 받던 시절은 끝났기 때문이다. 기성 변호사들은 ‘홍보’ 혹은 ‘광고’에 익숙하지 않

다. 신규 변호사들의 적극성이 가미된다면 광고규제가 풀린 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견 변호사들처럼 개업인사나 중앙 일간지에 내고 그 후론 광고와는 담쌓고 살던 때는 지났다. 게다가 시장은 급격히 어려워졌지만 변호사업계에서의 광고나 홍보수단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광고수단이 다양화되면 재력을 동원해 광고를 많이 할 여력이 있는 기성 변호사에게 더 유리할 거라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방법의 다양화는 광고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변호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홍보에 능한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

변호사업계의 변화는 신규, 청년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된다. 기성 변호사들은 현실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을 제대로 못 느끼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앞으로 ‘홍보’에 능한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가 제 아무리 개인 능력이 좋아도 의뢰인이 이를 알지 못하면 수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조금만 노력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떡을 먹여줄 거라 여기는 ‘선비’형 변호사가 아직 많다.

그런 면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는 변호사들은 새로운 기회의 세대다. 기성 세대가 감히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고 눈치를 보지 않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어서다.

관행을 벗어나야...일반 독자가 곧 ‘의뢰인’이다

먼저 기존 법조인들이 법조 언론을 대하는 관행을 벗어나란 당부를 하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조전문매체로 익히 알려진 곳은 적어도 변호사의 영업활동에는 거의 도움이 안



앞으로 ‘홍보’에 능한 변호사가 ‘능력’있는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가 제 아무리 개인 능력이 좋아도 의뢰인이 이를 알지 못하면 수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조금만 노력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떡을 먹여줄 거라 여기는 ‘선비’형 변호사가 아직 많다.

된다. 변호사 뿐 아니라 판검사들도 법조전문지에 글을 보내고 싶다면 자기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매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법조인 그들 자신이다. 독자가 법조인들로 한정된 매체에 아무리 글을 올리고 얼굴이 나와봐야 사보나 동아리신문에서 활동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의외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법조전문지를 신봉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중앙 일간지에 고정 칼럼을 쓰는 모 판사는 꽤 잘 읽히고 재미있는 글로 호응도가 높다. 만약 그 판사가 법조전문지에 글을 낸다면 같은 반응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의뢰인들이 보는 매체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언론홍보의 첫 걸음이다. 중앙 일간지 혹은 일반 독자와 법조인을 이어주는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법조인들끼리 보는 매체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인정 욕구’일 뿐이다. 법조전문매체에 이름이 나와야 그제서야 법조인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꽤 있다. 구시대적 관행에 아직 머물러 있는 셈이다.

언론홍보의 첫 걸음은 ‘의뢰인’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는 ‘일반 독자’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독자가 관심을 갖게 될까.

우선 독자에게 전달자 역할을 하는 ‘기자’의 시선을 끌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언론을 잘 이용하는 K변호사를 눈여겨 볼만 하다. 한때 정치인이기도 했던 그는 중편 등에서 활약하다가 불미스런 스캔들에 연인 후부터 변호사 업무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주특기가 바로 언론홍보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보도가 잘 되고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일부

기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많은 변호사들의 언론관 혹은 언론인관은 일반 대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기자를 '무섭고 어려운 존재'로만 여긴다. 의외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공직'에 있지도 않으면서 기자를 어렵게 대하는 이들은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다.



러 말한다. 사건 수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도 않는다. 최대한 시끄럽게 사건을 키워 보도가 되도록 노력한다. 작은 규모의 로펌에서 홍보조직을 두는 건 보기 어렵다. 그런데 K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언론홍보에 나선다. K변호사에 대한 호불호는 논외로 두고 그의 방법론은 배울만 하다.

어렵다면서 '노력'은 안 하는 변호사들

개업 변호사들과 얘기하다 보면 '영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영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선 간과한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 오겠지라며 막연한 기대를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들을 꼭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방송에 진출하게 됐는

지도 알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중편에 자주 나오는 B번호 사는 사무장을 시켜 방송에 자신을 미화하는 사연을 보냈다. 재미있게 구성된 사연에 방송작가들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 그 변호사는 해당 프로에서 입담을 보여준 뒤 다른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게 됐다. 결국 방송에 나오거나 신문에 소개되고 싶은 변호사라면 자신을 최대한 포장하는 기술을 동원해 방송관계자나 기자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그 정도 적극성도 없다면 방송이나 신문에선 불러 주지 않는다.

'기자'를 피하지 말고 이용하라

기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많은 변호사들의 언론관 혹은 언론인관은 일반 대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기자를 '무섭고 어려운 존재'로만 여긴다. 의외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공직'에 있지도 않으면서 기자를 어렵게 대하는 이들은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다. 기자는 대개 힘 있고 공권력을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들에게 매서운 비판으로 대하지만 그 외 사적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개업 변호사면서도 기자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 혹여 기자가 '탈세'나 '위법'사항을 지적할 거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지나친 피해의식 혹은 조심성이다. 기자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언론홍보의 길이 열린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기자를 멀리하고 성공한 변호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성공하는 이들은 항상 기자들을 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창**

유동주 기자(변호사)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약력 : 이데일리 증권부, 자산운용팀 기자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비서관
머니투데이 더300(정치부) 기자
머니투데이 더열(theL) 팀장

특별기고②



계절의 여왕 5월에 로스쿨 후배님들께 드리는 글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문종탁 변호사**

사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후배여러분!
중앙대학교 로스쿨 3기 문종탁변호사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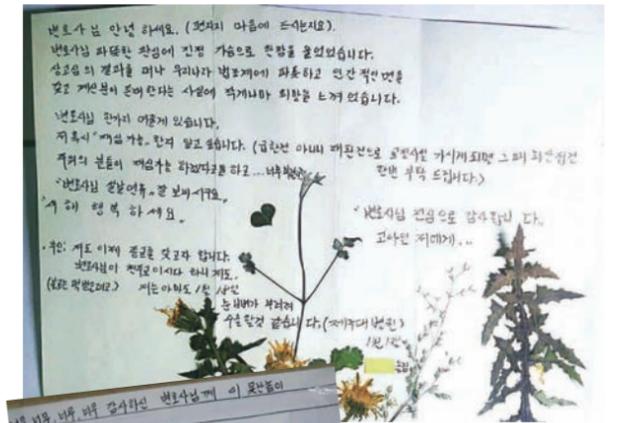
- 계절의 여왕 5월과 로스쿨생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5월 연휴를 이용해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후배님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또는 맥에서 법공부에 매진하시겠지요? 저 역시 몇 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로스쿨생으로 계절의 여왕이나 황금연휴는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 사회에 나와 보니 꿈을 위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학식을 먹던 그때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시겠지만 가끔은 그리기도 합니다.

- 로스쿨에 대한 감사함과 당당함

저는 대우가 괜찮은 언론사를 나름 인정받으며 다녔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여러분과 같이 법조인의 꿈을 위해 사표를 썼습니다. 헬렌 켈러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제 인생 스스로 책임져야하기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는 국선변호인도 하며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로스쿨제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변호사가 될 수도 이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잘한 선택 중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것은 2,3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법시험은 올해인 2017년에 폐지된다고 하였고, 합격자수도 계속 줄이고 있었던 때라 법조인이 되기 위해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정도 되는 저

는 다행히도 로스쿨 3년을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었습니 다. 지금도 제 모교 중앙대학교 로스쿨에 감사하고 있고 모교 은사님들께 연초에는 손편지를 씁니다. 로스쿨에 대한 감사함이 제가 로스쿨제도 개혁 TF위원으로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으로 이번에 당선되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님의 선거 캠프원으로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비우호적이었던 법조 한참 선배님들께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서 온 편지들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들께 법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공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비유하자면
 로스쿨생은 로스쿨생다워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찾아온 로스쿨 남후배



학생지도



취미생활, 피아노연주

-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하셔야 할 일들

모든 곳이 그렇지만 변호사업계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실 사랑하는 후배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힘들다고 하는 변호사업계도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헬조선’이라고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변호사는 몇 안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후배님들은 조금만 참으시고 학업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식히고 쉬시려고 <로스쿨 창>을 읽으신다면 무거운 주제가 된 듯하여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여행기나 자신의 신변잡기 글들은 여행서적이나 SNS에서 얼마든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로스쿨생들께서 보실 글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익’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계다가 선택법까지 기본서 읽고 기출문제 풀고 객관식, 사례, 기록 시험들 준비하는 것이 능력의 한계까지 가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다가 지금과 같은 5,6월 초여름이 아닌 한겨울에 있는 5일 간의 변호사시험은 객관식만 보는 사법시험1차나 사례만 보는 사법시험2차와는 다릅니다. 첫날 아침부터 공법시험 객관식, 사례, 기록을 몇 시간씩 풀고 쓰고 돌아오면 어두운 저녁인데 다음날 바로 형사법(형법, 형소법) 본다고 급하게 소화도 잘 안 되는 저녁을 먹거나 건너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부량에 있어서 적어도 문과에서 변호사시험을 능가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수험은 효율적으로 특히 기출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조인은 법에 살고 죽으므로 법조문이 가장 기본입니다. 판례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많은 학설들은 결국 판례에 대한 찬반이라 해도 적어도 수험에서는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학계와는 달리 법학은 판례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좋습니다. 우선 판례의 태도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판례의 찬반에 대한 학설의 핵심 논거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력이 안 되시면 일단 판례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학설과 판례가 뒤섞이면 객관식에서 낭패입니다. 사례와 기록은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 기록들은 적어도 목차 정도는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평상시 학점은 가장 기본인 수업을 잘 듣고 출제자인 교수님의 학설을 풍부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로3이 되어 답답해하던 로스쿨 후배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여러분들도 힘들 때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변호사가 된 여러분의 선배님들께 SOS를 치세요. 맛있는 식사를 살 것이고 적어도 사무실에서 차는 내 줄 것이며 필요한 수험팁이나 로스쿨 생활 얘기를 누구보다 잘 들려줄 것입니다.

- 평생 직업의 가장 큰 무기 그리고 정명

수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다행히도 로스쿨은 일반대학원이 아닌 전문대학원입니다. 결국 지금 하시는 공부가 여러분 평생 직업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법전, 요건사실론, 민사기록, 형사기록, 여러 판례들이 바로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 하실 실무입니다.

사실 변호사가 되어 현업을 하면 로스쿨 시절처럼 법공부에 매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하고 전국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고, 돌아와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쓰고,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찾고 증거들을 잘 취합해 승소에 집중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처럼 민법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할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지금 여러분들께 법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공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비유하자면 로스쿨생은 로스쿨생다워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학부시절 운동주 문학회에서 시를 썼고 단편영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아노연주, 스킨스쿠버와 여행 등 다방면에 취미가 많지만 그런 취미들이 수험생활에서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수험에서 가질 취미를 하나만 꼽자면 운동입니다. 마지막에는 체력싸움이므로 공부가 안될 때는 운동장을 뛰시든가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체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법조에서 만납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앞으로 50%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재수합격률은 훨씬 낮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된 동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받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므로 행여라도 재수는 생각하지도 마시고 로3이면 고3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업변호사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들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대형로펌에 가면 비록 격무에는 시달려도 더 이상 수험의 고통은 없습니다.

법조 선배님들 모두 한 때는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로스쿨생분들 모두 법조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로스쿨 선배 변호사 문종탁 올림 창

문종탁 변호사

법률사무소 JT 대표변호사 JT는 종탁의 이니셜. Justice & Truth란 뜻. 고향은 서울송파, 연세대에서 시 쓰고 단편영화 감독을 했고, 중앙대로스쿨 법학전문석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법원, 서울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법무부 법교육 강사,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이며 여행, 음악, 영화, 스킨스쿠버, 사람들을 사랑한다.

Hot ISSUE

고려대학교 법전원. 공익변호사 키우기 프로젝트 '키워드림'기금 설립

고려대학교 법전원 학생회는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공익전담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공익기금을 설립했다. 공익 법률 분야에서 비영리적으로 활동하는 동문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기금의 명칭은 "공익기금이 당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드립니다."라는 뜻을 담은 '키워드림'으로 결정됐다. 동문 공익전담변호사를 돕기 위한 재원은 재학생들의 월 1,000원 후원사업, 고려대 법전원 및 법과대학 졸업생들의 후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상반기 첫 지원대상은 손지원 변호사(고려대 법전원 2기)로 결정됐다.



CAMPUS Asia (법학·사회과학) 사업단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난 3월 4일(토), CAMPUS Asia 법학·사회과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한·중·일 제4회 학생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생 심포지엄'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성과를 공유·평가하는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사업단의 공동 매니저인 최봉철 원장과 이명석 학장을 비롯하여 사업단 실무담당 교수인 정외과 이희옥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권철 교수,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패트리샤 게디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생 심포지엄에서는 "Career 디자인으로서의 CAMPUS Asia 프로그램", "동아시아 국가의 법-정치학 연구와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각국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업단의 목표와 관련한 '동아시아 공통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은 참석한 교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법전원. 불교 학생회 신입생 환영법회 열어

부산대 법전원 불교 학생회는 3월 25일(토) 부산 대광명사에서 주지 목종스님, 공병수 부산대 법전원 불교 학생회 지도법사 등 회원 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신입생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10여 신입생을 맞이한 부산대 법전원 불교 학생회는 "자신의 마음에너지를 증진시켜 성찰과 확고한 다짐, 꾸준한 학습을 통해 꿈을 이루길 바란다."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의 법문으로 부처님 정법을 실천하는 법조인이 되길 발원했다. 부산대, 동아대 법전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는 매달 2회 부산불교거사팀 정기법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특별법회 등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출처_BTN뉴스 2017-03-28



제6회 변호사시험 1,600명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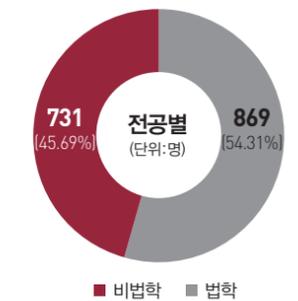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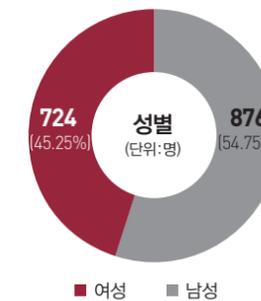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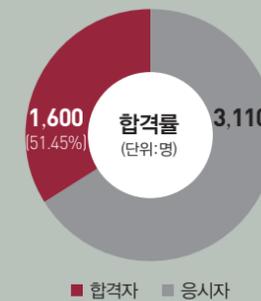
4월 14일(금) 법무부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0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110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법전원 입학정원(2천명) 대비 80%, 응시자 대비 51.45% 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5회 시험(55.2%)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성별로는 남자 876명(54.75%), 여자 724명(45.25%)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 869명(54.31%), 비법학 전공 731명(45.69%)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전남대학교 법전원. 2017년 체육대회 개최

지난 3월 24일(금) 전남대학교 법전원 대운동장에서는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는 송오식 법전원장과 Eugene Kwadwo Mensah 교수를 비롯한 19명의 법전원 교수, 1~2학년들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단체줄넘기, 농구, 축구, 장애물달리기, 법조문 찾기,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각 조별 지도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조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체육대회에는 각 조의 경기별 출전선수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돼 학년의 벽을 넘어 함께하는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제공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Hot ISSUE

로스쿨에서 전문성 쌓기 자신이 꿈꾸던 분야의 변호사로 거듭나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김치현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종합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저의 꿈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물류관련 수업 수강·외부활동·실무수습 등, 저는 저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재학기간 동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1.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 물류학을 전공했던 저는 이러한 시스템에 발맞춰 물류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마음먹었고, 물류법을 특성화로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저는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동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수업을 통해 전문성 쌓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관심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물류법을 특성화로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는 유통법·물류행정법 등 물류와 관련된 많은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하대학교는 물류전문대학원과의 학점 교류를 맺고 있어, 학생들이 원한다면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동안 항공산업론·항공서비스경영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 항공물류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고, 인천공항 등을 방문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물류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Case study를 통해 법의 해석과 적용이 항공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제가 후에 물류 전문 변호사로서 항공 물류와 관련된 사건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외부활동을 통해 전문성 쌓기

저는 외부 활동을 통해 물류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쌓고 싶은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 분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 활동은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교류의 장이 됩니다. 저는 교내 물류법학회 활동을 통해 물류법과 물류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물류법을 전공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부활동으로, 저는 국토교통부 항공인력양성사업인 국제항공물류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여름방학에 3박4일의 항공기초교육과정을 다녀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항공사·공항·국토교통부 등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물류학·우주항공공학 등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항공물류전문가 양성과정은 매 학기 지급되는 장학금과 국토교통부발행 국제항공전문가양성과정 수료증, 해외단기연수 프로그램 등 많은 혜택이 있어 후에 제가 물류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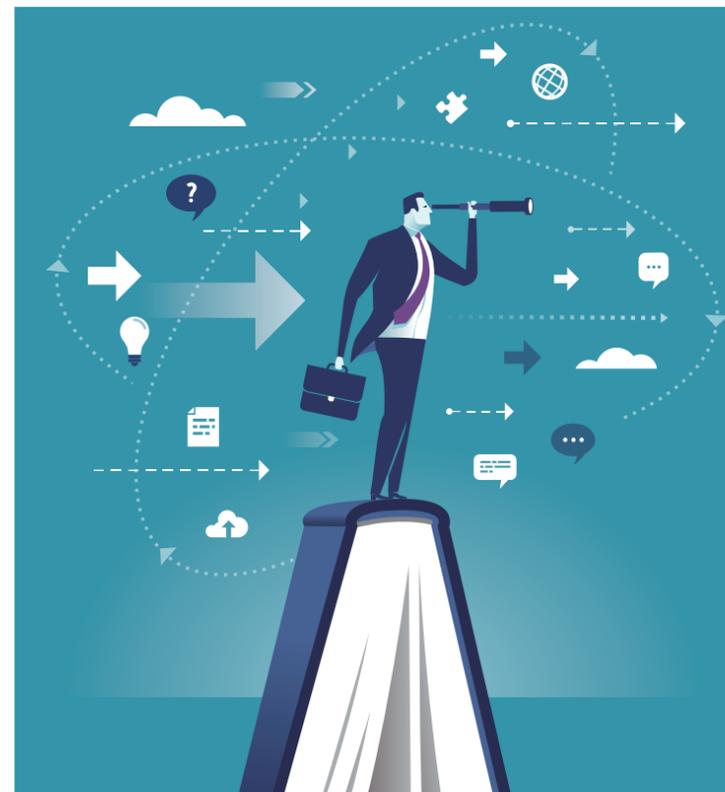
4. 실무수습을 통해 전문성 쌓기

실무수습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실습과정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출할 직역에 대해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역할 및 위치를 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합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 법무팀에서 겨울방학에 약 2주간 실무수습을 하였습니다. 실무수습 과정은 회사에서 업무 시 자주 사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과 계약서 검토·답변서 작성 등 실무적인 교육, 물류시설 탐방·소송참관 등 사무실 외의 활동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 통해 저는 변호사의 업무가 송무 뿐만 아니라 자문·준법감시활동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업 관련 업무에 있어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의 법률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속해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 간의 소송을 참관하면서, 물류산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류 전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에게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5. 지도교수님을 통해 전문성 쌓기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중 하나인 지도교수 제도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인하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은 지도교수님 한 분 당 최대 6명의 학생이 지도반으로 배치되고 있어 지도학생과 지도교수님 사이에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자신이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님과 해당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저는 국내 첫 물류 전문 변호사이신 김천수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반 모임을 통해 물류법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으면서 물류법에 대해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지도반 모임에서, 저는, 실무수습 때 참관하였던 쿠팡의 로켓배송 소송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도교수님을 통해 물류 전문 변호사로서의 진로 등을 상담 받으며, 제가 전문 변호사로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6. 마치며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종합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 저의 꿈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물류관련 수업 수강·외부활동·실무수습 등, 저는 저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재학기간 동안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변호사시험 자격 취득을 위한 고시학원화 되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모두가 자신이 꿈꾸던 분야의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저의 기고를 마치겠습니다. **창**

“이제는 CBT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김한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는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6회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올해로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처럼 자필 수기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체제에서 변호사시험을 계속하여 수기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리하기에 CBT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실무와 괴리된 시험방식의 시행

법조인은 모든 법률 문서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자필 수기 답안작성 방식이라서 법조실무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시험에는 기록형 시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후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충분히 실무교육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로스쿨들에서 재학기간 내 내 소장, 변론요지서, 의견서 등 중요 법문서들을 수기 방식으로만 작성하도록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기 방식의 사례형, 기록형 변호사시험 시행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사례형 및 기록형 답안작성시 글씨체가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악필자의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수기 연습을 하는 등 법조 실무와는 전혀 무관

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한 컴퓨터를 사용한 법문서 작성보다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수기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 답안을 최대한 빨리 작성하는 연습만을 계속하게 되어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는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2. 채점의 공정성과 용이성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채점을 경험한 다수 교수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많은 답안을 계속해서 채점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글씨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같은 내용의 답안이라고 할지라도 악필의 경우 그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글씨체가 0.1%라도 실제 채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악이 아니라 CBT 방식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점위원들에게도 CBT 방식으로 작성된 답안은 가독성 면에서 탁월하므로 채점의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변시 채점을 한번이라도 경험해보신 교수님중에서는 글씨체로 인해 답안지의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채점을 할수없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분이 많습니다.

CBT 방식으로 작성된 답안보다 글씨체가 제각각인 수기로 작성된 답안을 더 선호하는 채점위원은 단 한분도 없을거라고 확신합니다.



3. 토플 등 전국단위 CBT방식 시험시행의 기술적 문제 부존재

이미 대한민국은 IT 선진국으로서 어학시험등에서 CBT 방식의 시험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노트북이나 넷북이 어렵다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고 해당 시험의 시행만 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로 토익, 토플 Writing시험처럼 충분히 CBT방식의 변호사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도중 컴퓨터 다운이나 데이터 소실 등의 비상상황은 실시간 서버저장 등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시험감독관에 의한 시험시간 종료선언등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하여 오히려 6회 시험에 발생한 '한양대 사태' 같은 사례를 아예 막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다운 등 비상상황 발생의 희박한 가능성만을 강조하며 알파고 등 AI를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CBT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것과 다를바 없는 매우 구시대적이고 복지부동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스스로도 2010년 최초로 시행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방식으로 시행하려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CBT방식 변호사시험 시행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7년이 흐르는 동안 CBT방식 변호사시험 시행을 위한 기술적 장애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개방되어 많은 외국계 로펌들의 법조 직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에서도 계속해서 시험방식을 수기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퇴행이며 본래의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믿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속에서 법조실무와 괴리되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변호사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의 미래지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혁신을 위해서 변호사시험 시행방식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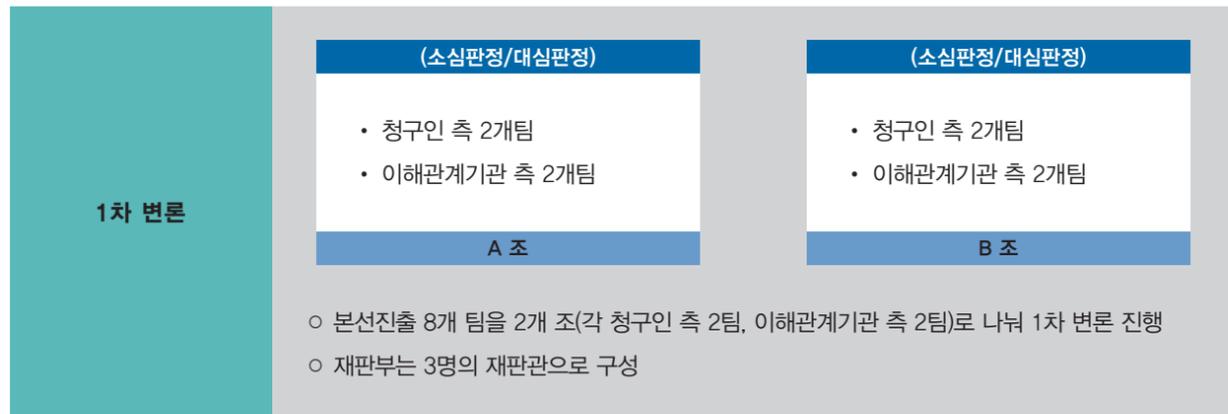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부터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법학도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editor. 박소희

생동감 넘치는 헌법 변론 체험!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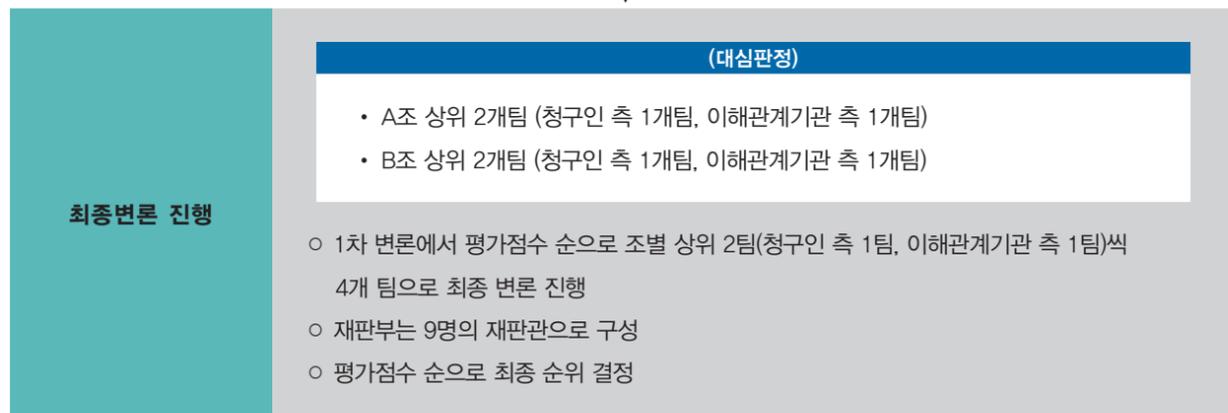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란?

헌법재판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회이며,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경연대회의 문제는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하며, 본선은 경연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혹은 합헌 등의 헌법재판 변론을 위한 서면을 작성한 후 심판정에서 변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회 진행과정



최종 변론 진출팀 발표



▶ 변론 진행 방식



- 원칙**
 - 변론은 팀당 총 30분의 시간범위에서 진행함.
 - * (제한시간) 주변론 10분, 상호 질문 및 답변(반론) 각 2분씩, 종합변론 5분
 - * 해당 변론의 제한시간 내에 변론을 마쳐야 하며, 제한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의 변론에서 남은 시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변론**
 - 10분의 시간범위에서 팀원 중 2명이 분담하여 진행함.
 - 청구인 측 2팀이 먼저 변론하고, 다음 이해관계기관 측 2팀이 변론함. 변론순서는 변론 시작 전에 추첨으로 결정.
 - 주변론에서는 변론서에 제시된 쟁점과 주장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변론에서 현출되는 다른 팀의 쟁점과 주장을 인용 또는 원용하지 말 것.
- 질문 및 답변(반론)**
 - 각 팀은 자유롭게 상대팀에게 질문 또는 반론을 할 수 있고, 질문 또는 반론을 받은 팀은 답변 또는 재반론을 할 수 있음. (다만, 상대측에 대해서만 질문 또는 반론할 수 있음)
 - 주변론의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문 또는 반론을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질문 또는 반론을 할 팀을 지정할 수 있음.
- 종합변론**
 - 5분의 시간범위에서 팀원 중 1명이 대표로 함.
 - 주변론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기관 측의 순서로 진행하며, 변론순서는 주변론의 역순으로 함.
 - 재판관의 질문이나 상대측의 질문 또는 반론이 금지됨.

▶ 제3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수상현황

상 명	수상팀	명 단
헌법재판소장상	서울대 법전원 '첫눈'팀	류승훈, 송인혁, 장규이
금 상	성균관대 법전원 '헌법전문'팀	김도희, 박은하, 조연지
은 상	연세대 법전원 '우산'팀	공자영, 원혜인, 전유림
	서울대 법전원 '반려자'팀	사공훈, 이영진, 한 항
동 상	연세대 법전원 '평행사변'팀	한상원, 유시환, 최자유
	한양대 법전원 '이기조'팀	김재경, 조아라, 이재원
	고려대 법전원 '디셈버리스트'팀	김수연, 윤지현, 황예림
우수변론상(개인)	이화여대 법전원 '동행'팀	정은재, 이영신, 김희선
	서울대 법전원	한항

※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지급되었으며, 금상, 은상, 동상, 우수변론상 수상팀(수상자)에게도 상금이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전원 '첫눈'팀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우승팀 서울대 법전원 첫눈팀(류승훈·송인혁·장규이)에게 박한철 소장이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Q. 수상소감은?

▶ 수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본선 당일엔 눈이 많이 왔었는데, 눈을 밟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저희 팀명이랑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Q. 팀원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팀명 '첫눈'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 대회 공고가 난 이후 주변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도중에 우연히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팀명 '첫눈'은 저희 팀이 결성되던 날 2016년 첫눈이 와서 정하였었습니다. 첫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이 들듯이, 저희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첫눈'같은 재판소의 결정을 받고 싶어서 첫눈이라고.. 뒤늦게 의미를 붙여보긴 했습니다(웃음).

Q.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 헌법과 기본권의 의의를 되새기고, 분쟁 해결의 구체적 도구로서 헌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입장을

택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서면단계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Q. 제3회 경연대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 이번 문제는 외국법상 인생동반자로 등록된 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청구인 측을 택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에 외국법상 인생동반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에 해당한다는 한 정위헌청구를 하였습니다.

Q. 대회는 얼마나 준비했나요?

▶ 종강 이후 약 2주 동안 예선 서면을 준비하였고, 본선 진출팀 발표 이후 약 8일 동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Q. 대회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요?

▶ 저희 학교에서 본심에 진출한 게 처음이라, 이전 참가자들의 경험이나 자료, 방법론을 참고할 수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심 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서면의 형식을 맞추는 것이 특히 힘들었고, 본심의 변론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변론 당일에 1차 변론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 질문 시간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Q.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대회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주세요!

▶ 서면 준비는 일일 단위로 일정을 세분화해서 계속 첨삭과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개요와 글의 골격을 최대한 빨리 갖추는 게 전체 일정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여유가 넉넉하다면 초반에 자료 조사를 풍성하게 하는 게 독창적인 논리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론 준비는 말의 세세한 부분을 다듬기보다 서면에서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조점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과정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부분에는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변론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과 재반박 시간에서 논리의 정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 질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가장 추상적인 헌법 이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안 포섭까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주장의 전제의 전제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사회의 원초적 합의가 헌법에 녹아있다는 점, 그렇기에 헌법이 단지 추상적인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정말로 삶과 사회와 국가에 의미를 갖는 규범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네요.

Q.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도전해볼 만한 재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배운 헌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매력인 듯합니다. 다만, 좋은 성과로 이어지려면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창**

사시 ⇨ 로스쿨 전환 40대 변호사 “제가 금수저 인가요?”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로스쿨 졸업생 A씨(만 43세)는 지난달 14일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통지서를 받아두고 감회에 젖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3년 전 A씨가 로스쿨에 들어가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 공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ICT업계에서 5년간 전략 기획 및 해외사업 업무로 직장생활을 한 후 신입동에서 3년간 사법시험 준비를 했으나 선배의 권유로 로스쿨 입학 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로스쿨 입학 당시 사법시험을 결심할 때보다 고민이 적었다"고 털어놓았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와 학업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지만 로스쿨은 장학금 과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하는데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 후에는 "3년이라는 짜여진 학사일정 속에서 교수님들과 면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과정이 혼자 책을 보고 풀이해 나가는 사법시험 준비 방식보다 법학 체계를 더욱 빠르고 균형 있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 사법시험 vs 로스쿨

A씨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로 학업 시스템을 꼽았다. 한마디로 '사교육' 이나 '공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소속감과 존재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었다"고 회상했다.

사시 합격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컸다. 그에 반해 로스 쿨은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방식을 따 라가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합격률을 비교하면 사시의 경우 최종 합격률이 1차 수험 생 대비 3~4% 정도에 불과해서 결국 95% 이상은 고시낭 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6회 로스쿨 변호 사 시험은 응시자 3110명 중 합격자는 1600명으로 합격률 51.4%를 기록했다.

A씨는 "다양한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험 기 간을 줄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법조계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로스쿨은 금수저가 다니는 학교?

"제가 금수저인가요?"

A씨는 로스쿨의 금수저 논란에 대해 허탈하다는 듯이 웃으 며 이렇게 반문했다.

그도 처음에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직장을 나와 학업에 전 념하기 위한 비용마련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사립학교라 한 학기당 900만원대의 학비를 감당하기 벅찼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금수저만 다닐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한 학기당 대략 3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 아 연간 1200만원씩 3년간 총 학비는 3600만원이 들었다" 고 설명했다. 로스쿨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으로 많은 수 의 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없으면 학 자금 대출이 가능해서 기존 사법시험보다 경제력 없는 사 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등록금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달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7 년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분석대상 187개교의 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8만8000원으로 집계됐 다. 의학 계열의 경우 953만5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A씨는 "예전 사법시험 수험 시절 책값, 학원 수업료, 고시원 비용 외에 월 50만원의 생활비가 더 필요했다"고 회상했다.

지난달 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공무원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6년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25만7000명으로 공시생 1인당 연간 지출 액은 18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회비용 은 17조1429억원에 달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수험 기간과 비용면에서 덜 들어 오히려 경제적 취약자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로서의 진로 고민

A씨는 5월1일부터 6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실 무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 기간이 교육인지 근로인지 불분 명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수급하려는 법률사무소들이 많아 시간을 갖고 좋은 수습기관을 찾으라는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대한변협 실무연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도 실무수습기관 선정 및 취업에 대 한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것이다. 이런 문제로 변호사 합격 자 중에는 대한변협 연수를 받으며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 하겠다는 사람들과 빨리 근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나뉘 다고 한다.

A씨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 다. 본인의 이공계 전공을 살려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법무 법인 취업, 개인사무실 개업, 동남아시아 등 해외 법무 업 무 등을 구상 중이다.

30~40대에 직장생활을 접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 도전하기 가 쉬운 일은 아니다. 생활비와 학업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법조계도 청년 취업난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변 호사 합격이 바로 신분상승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A씨는 "로스쿨 도입은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법조계 진입 의 현실적인 길을 연 것이며 앞으로 경제적 약자와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도적 정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2017-05-05

NEWS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성 논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민



지난 4월 14일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간에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제1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 합격자 수를 1,6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응시자 3,110명 대비 합격률은 51.45%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률이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때의 합격률 87.15%에 비해선 무려 35.7%가 낮은 결과다. 지난해 합격률 55.2%와 비교해서도 3.75%가 낮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합격자 수를 정원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즉,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법시험에서와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보아 합격자 수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

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 당시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매년도 합격자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및 합격자 수는 적절한가? 이에 대해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자격시험제로 운영하되 '응시자 대비 최소한 6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한변협은 기존의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도 많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에 대략 300 정도의 차이가 있다. 로스쿨 측은 매년 1,800명 이상을, 대한변협 측은 1,500명 이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종전의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지난 6년간과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총 법조인 배출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자. 2012년에는 사시출신 1,030명과 변시출신 1,451명 등 모두 2,481명이 배출되었고, 이후 2013년 2,364명(사시 826, 변시 1,538), 2014년 2,336명(사시 786, 변시 1,550), 2015년 2,074명(사시 509, 변시 1,565), 2016년 1,937명(사시 356, 변시 1,581), 2017년 1,834명(사시 234, 변시 1,600)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3년은 그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양측의 입장에 따라 예상되는 변호사 배출규모를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한변협 측의 주장대로 현재와 같은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 즉, 1,600명 전후가 유지되면 2018년 1,761명(사시 161, 변시 1,600), 2019년 1,714명(사시 114, 변시 1,600), 2020년 1,650명(사시 50, 변시 1,600) 전후가 될 것이다. 반면, 로스쿨 측이 주장하는 1,800명 수준이 적용되면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50명 수준이다.



양측의 누적격차를 보면 향후 3년간 총 600여명에 불과하며, 그 후에도 로스쿨 측의 주장이 계속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적은 변호사 배출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이 정도는 지난 6년간의 경험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적 법률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을 두고 로스쿨 측이나 대한변협 측에서 크게 대립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법조인 양성의 중심이 될 로스쿨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로스쿨과 대한변협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갈 파트너이자 협력자이다. 현재와 같은 합격자 수의 통제는 시험위주의 운영체계가 지속되어 로스쿨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파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법조사회의 경쟁력 약화와 학문연구의 토대를 무너지게 할 뿐이다.

기사출처: 중부매일 2017-04-24

활기찬 하루를 위한 운동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하루하루가 피로하다며 진료를 들었던 김씨에게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해졌다. '정신집중도 안 되고, 피곤해서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렵는데, 운동을 하라니...' 라는 속마음이 얼굴표정에 역력하다. 물론, 피로가 주증상인 사람들이 진료를 찾아오면 신체의 질병 때문이 아닌지 먼저 검진을 하게 된다. 다행히 신체에 피로를 유발할만한 큰 원인이 발견되지 못했을 경우 약 70%의 환자는 '운동요법'을 같이 처방받게 된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려는 의도가 크지만, 이러한 피로의 상당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조절되지 못하는 교감신경계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김씨처럼 활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매일 매일을 활기찬 하루로 보내기 위한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을까?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걷기, 조깅, 줄넘기, 자전거,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등)과 무산소 운동(단거리 빨리 뛰기, 근력 트레이닝, 역도 등)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전력을 다하는 것, 그래서 5분 이상 하기 어려운 것은 무산소 운동이고, 10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으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활력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유산소 운동이 정답이다. 유산소운동을 시작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면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활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대부분 느낄 수 있게 된다. 유산소 운동은 부작용도 많지 않아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도 좋다. 하지만, 더 큰 욕심이 생긴다면 무산소 운동도 같이 시도해보면 더 좋다. 대체로 유산소 운동은 매일, 무산소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하도록 권유한다. 무산소 운동까지

같이 하게 되면 활력의 정도가 한 단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은 갑작스런 혈압상승, 혈관 저항의 증가 등으로 심장에 부담을 과격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적응이 된 사람이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으로 먼저 재미를 붙이는 것이 좋다.

운동을 막 시작할 때는 가능한 약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거의 놀다시피 1~2주를 보내도 심폐기능이 서서히 좋아진다. 이때부터 매주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추천되는 강도는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운동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심장박동수로 평가하는데, 운동시 추천되는 심장박동수인 목표 심박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평소 가만히 앉아서 측정한 안정시 심장박동수가 70회인 50세의 성인이라면 50%의 운동 강도를 위해서는 심장박동수를 120회가 운동 중에 유지되도록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40%에서 시작해서 80%까지 서서히 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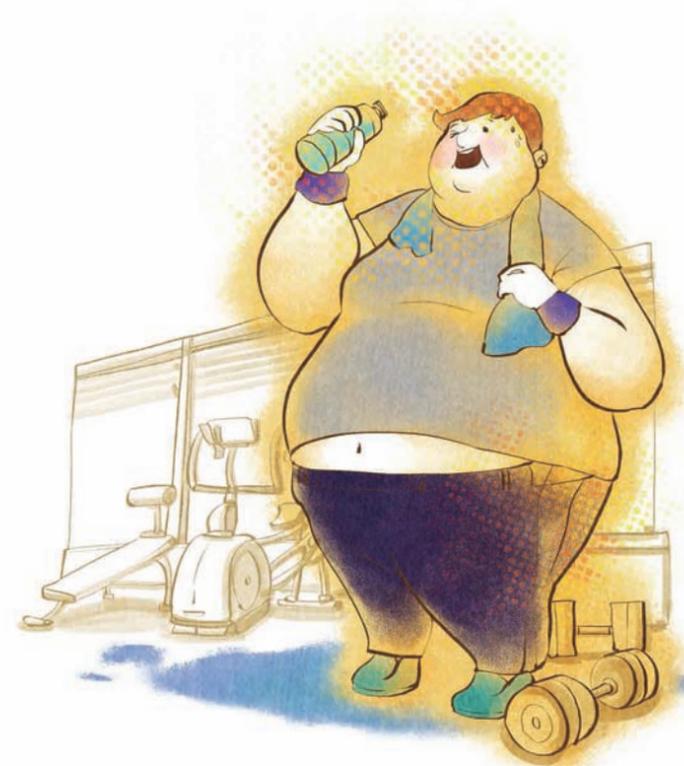
$$\text{최대심박수} = 220 - \text{나이}(50) = 170$$

$$\text{여유심박수} = \text{최대심박수}(170) - \text{안정시심박수}(70) = 100$$

$$\text{목표심박수} = \text{여유심박수}(100) \times \text{운동강도}(0.5) + \text{안정시심박수}(70) = 120$$

활기를 위한 운동에는 '통증이 없으면 성과도 없다'는 속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피로가 지속되거나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빠근한 곳이 있다면 운동의 빈도나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줄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주일에 2회 이하의 운동은 심폐기능의 축적 및 향상 효과가 별로 없어 운동을 할 때마다 피로를 느끼게 되어 활기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대체로 이틀에 한번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시작하면 꼭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이다. 운동의 가장 큰 부작용이 다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인데,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운동 전과 후 약 5 ~ 10분간은 아주



약한 강도로 심장 박동수를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이다. 걷기, 제자리 뛰기 등으로 서서히 몸의 열을 올리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한 예이다. 스트레칭도 이때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된다.

흔하지는 않지만, 운동 중 또는 직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운동의 단순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심장이나 혈관 이상이 운동으로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체로 운동에 숙달되지 않은 초보자에게 발생하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고, 고혈압, 심장질환, 가슴 통증, 현기증, 뼈나 관절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의사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적이면서, 좌식생활이 위주인 현대인들은 운동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많은 조사결과들에서

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항목으로 운동을 꼽으면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운동을 처방할 때는 운동이 왜 필요한지와 함께 실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꼭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은 '활동량'을 늘이는 것이다. 활동량이라는 말은 꼭 운동이 아니어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걷도록 하는 것,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직장과 가능한 먼 곳에 주차하는 것, 직장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 TV를 보거나 전화를 할 때는 서 있거나 어슬렁거릴 것,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서서 진행할 것 등의 처방이 바로 활동량을 늘이기 위한 것 들이다. 이렇게 활동량만 늘어나도 하루하루의 활기를 올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활력을 유지하려면 계획적인 운동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무릎, 허리 등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있어 운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은 근육과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물속 걷기(아쿠아로빅)'나 '수영'이 추천된다. 물이 싫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자전거나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무리가 가해지지 않고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시작하면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절 주위의 근육힘이 좋아진 뒤, 다른 운동으로 서서히 확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폐경기 여성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좋다. 땅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걷기, 조깅, 등산, 줄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직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당장 운동 계획을 세워보자. 이중 제일 첫 번째는 하고 싶고 재미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운동을 그만 두면 수개월안에 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운동이 너무 싫다면 '신체활동량'을 늘이는 방법을 택해보자. 어떤 방법을 택하였든지, 수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두기 어려워지고 또 다른 운동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데, 훨씬 하루가 활기차고, 알뜰하게 활용이 되며, 피로마저 없어진 자신에 놀라고 있을 것이다. **창**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 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비극적 과거에서 태어난 최고의 아름다움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The Birth of Venus

이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으로 잘 알려진 그림으로 원래 제목은 <베누스의 탄생(La nascita di Venere)>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이지요.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본명이 아니라 '작은 술통'이란 뜻의 별명입니다. 본명은 Alessandro di Mariano di Vanni Fillipepi입니다. 생애 대부분이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지요.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바다에서 탄생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미의 여신답게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여성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그림은 1483년경 보티첼리가 예술 후원 가문으로 잘 알려진 메디치가의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다고 하고, 그 모델이 된 여성은 줄리아노 메디치의 연인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로 보티첼리가 흠모하여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모델이 된 베스푸치는 마상대회에서 1등을 한 르네상스 시기 최고 미녀입니다.



<비너스와 마르스>, 보티첼리

그러나 미인박명이라 하던가요. 폐결핵으로 일찍 요절한 그녀를 보티첼리는 평생 흠모하였고, 그녀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여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다고 합니다. 보티첼리가 얼마나 베스푸치를 흠모하였는지, 그의 다른 그림인 <비너스와 마르스>, <프리마베라>에서도 베스푸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마베라>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오늘의 작품과도 거의 유사한 구도이지요.

그리스 신화에서 비너스 여신은 바다의 물거품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헤시오도스 '신통기'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처음에는 카오스(혼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이아(어머니, 땅)와 탄타로스(지옥)가 태어나고 둘 사이에 우라노스(하늘), 폰토스(바다)가 태어납니다. 가이아는 자신



시모네타 베스푸치, Piero di Cosimo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싯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 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의 아들인 우라노스와 다시 부부가 되었는데 둘 사이에서 거인족(타이탄)들이 태어났고, 우라노스는 그 자식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크로노스의 동생들인 키클롭스와 헵타톤케이레스를 가이아의 몸속에 감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속에 덩치 큰 자식들이 있는 가이아가 괴로워하며, 아들 크로노스에게 큰 낫을 주고 복수를 청하였고,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버리는데 정액 또는 피가 바다와 만나 거품이 되었고 그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어 아프로스는 '거품'을 의미합니다. 아프로디테의 로마식 이름이 비너스이고요.

이렇게 지구 최초의 부부인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갈라서면서 하늘과 땅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또한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유명한 루벤스의 <자식을 삼키는 사투르누스>가 그것입니다. 사투르누스는 크로노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물론 비너스의 탄생 설화는 이 무시무시한 설화 말고도, 비너스가 제우스와 메테스 사이에서 나온 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면의 중앙에 비너스가 서 있고 오른쪽에 한 여성이 천을 펼쳐 들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자 둘이 끌어안고 바람을 불고 있지요. 비너스 탄생 설화에서처럼 바다에 거품이 일자 바다의 신 폰토스는 조개껍데기로 거품을 받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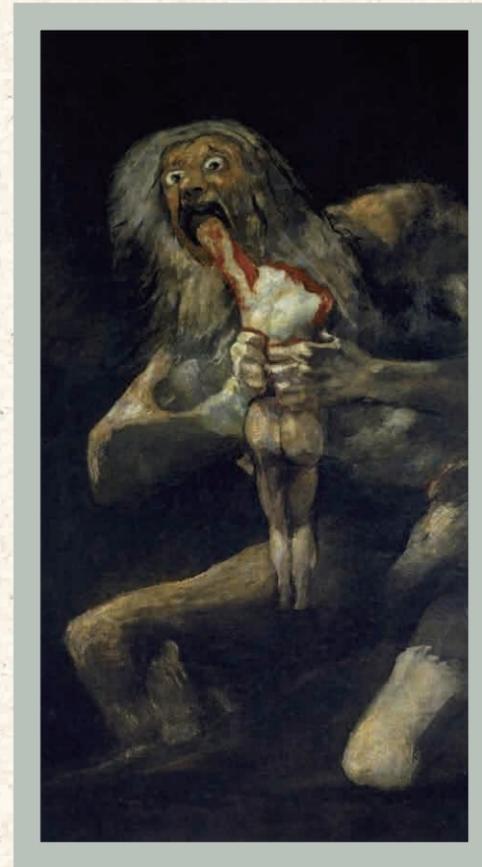
가장 왼쪽에 있는 신은 서풍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제피로스와 아우라는 바람을 불어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를 해변으로 밀어 올려 상륙시키는 역할을 맡았네요. 제피로스가 안고 있는 신은 아우라라는 미풍의 신이라는 말도 있고, 제피로스의 아내인 꽃의 여신 클로리스(플로라)라는 설도 있습니다.

거품이 모여서 제피로스의 바람을 타고 육지로 가는 동안 그 거품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변에 닿을 때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성인 여성이 되었지요.

오른쪽 여성은 계절을 맡은 호라이 여신입니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옷만 봐도 봄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비너스를 위하여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있네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도 호라이 여신이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신통기에 따르면 호라이 여신은 세 명이기 때문에, 복수(호라이 여신)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단수형(호라이 여신)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프림avera>, 보티첼리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고야



<메디치의 비너스>

그리고 그림에는 없지만 운명의 신인 모이라이 여신들은 비너스에게 아름다움, 사랑, 항해사들을 수호하는 직분을 맡깁니다. 제우스는 히메로스라 신녀를 줍니다. 히메로스는 막연한 그리움이라는 뜻이라는군요.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지만 점차 다산, 사랑의 여신으로 이미지가 확장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지역에서는 전쟁의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했고, 후에는 매춘부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기도 했었다는군요. 전설에 따르면 비너스와 함께 장미꽃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화면 곳곳에 장미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비너스와 같다고 하지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육체를 완벽한 대리석 조각처럼 균형 있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기 대리석 조각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여성 누드에 대해서 관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시기 조각상들을 보면 생각보다 여성 누드는 별로 없고, 있어도 사실 조금씩 가리고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 누드는 외설이라 기피하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다만 신화 등에 관대했기 때문에 신화를 빌어 자신이 사랑한 여성의 누드를 그린 것이지

요. 그래도 완전한 누드는 할 수 없었는지 왼손과 머리카락으로 음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비너스 푸디카(pudica)라고 하는데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전 조각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 메디치가에는 <메디치가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고전 조각이 있었는데, 보티첼리는 메디치가문에 갈 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극찬했다 하므로 이를 차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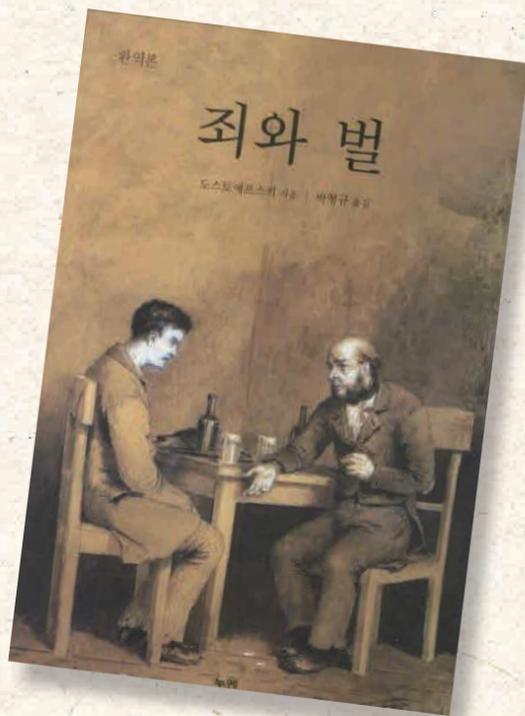
그림의 비너스를 보면 너무나 흰피부인데 이는 베스푸치가 폐결핵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창백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왼쪽 어깨가 힘없이 떨어진 모습이나 오른손을 왼 가슴에 얹는 것 역시 폐결핵의 고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얼굴 각도는 약간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세이지만 비레나 자세가 왜곡된 것이 보티첼리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메디치가 별장에서 자주 열린 사고모임에 보티첼리도 참석하였고 그 곳에 온 플라톤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15세기 신플라톤주의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보티첼리도 비너스의 본성을 인간적인 사랑을 일으키는 '지상의 여신'과 정신적 사랑을 고취시키는 '천상의 여신'으로 구분하고, 육체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짐으로써 정신적 완벽한 아름다움에까지 이른다고 보아 비너스의 모습을 완벽하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너스가 토스카나 해안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려 피렌체에도 신플라톤주의의 인본주의가 당도했다는 것을 나타냈다고도 합니다. **창**

그림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723&mobile&cid=46720&categoryId=4680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8579&cid=46702&categoryId=46753&mobile>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56500&mobile&cid=46720&categoryId=4680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086&cid=40942&categoryId=33054&mobile>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7148&cid=40942&categoryId=33054&mobile>

도스트오프스키의 罪와罰



Prestuplenie i nakazanie

저자소개



박상홍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법학도 로디온 로마니치 라스콜니코프. 그는 페테르스부르크 시내의 S거리 오층 집 꼭대기 하숙집에서 병과 가난을 함께 안고 청년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정작 그가 앓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상실이다. 빈곤으로 학업은 휴학했고 하숙비가 밀린지는 오래됐다. 라스콜니코프는 매사에 결정을 짓지 못하는 자신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늘 불만이다.

오랜만에 길거리로 나온 그는 노파 알로나가 운영하는 전당포를 방문했다. 노파는 두 번째 방문한 그를 알아보고는 반겼다. 그는 집구조를 민첩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뭔가를 계획한다. 로디온은 자신의 은시계를 4루우블리에 맡기고 싶지만 1루우블리 반으로 깎았다. 그리고 선이자를 공채해 1루우블리 15카페이카를 받는다. 그야말로 폭리였다. 그는 며칠 동안 노파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탄 자신을 보고 놀랐다.

전당포에서 나온 그가 찾아 간 곳은 다름아닌 술집이다. 한쪽 구석에 앉아 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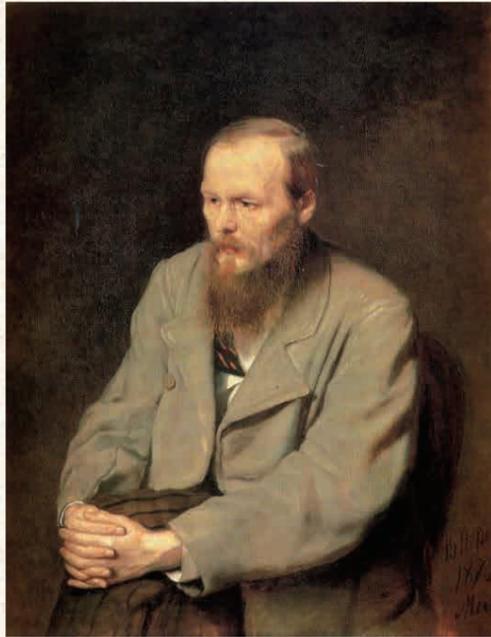
술을 마시는 마르멜라도프를 만났다. 그는 재혼하게 된 자신의 가족사를 비롯해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부로 나선 딸 소녀, 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신에게 돈을 보태주는 이야기 등 모든 것들을 주인공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딸 소녀는 천사였다. 인사불성이 된 마르멜라도프를 집으로 데려다 줬을 때 돌아온건 그의 부인의 화난 목소리였다. “돈 어디있어. 이 인간아, 술마시는데 다 썼군!” 그러나 그에게는 소녀가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에게 편지 한통이 날라 왔다. R현에 사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다. 내용은 오빠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가정교사 일을 한 여동생 두냐가 겪은 고생에 관한 이야기다. 로디온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스비드리가일로프 집의 가정교사가 된 두냐. 집주인은 두냐를 유혹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 마르파는 사실과는 반대로 두냐가 유혹한 것으로 의심해 두냐를 쫓아냈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녀 온 동네 사람들이 두냐를 비난했다. 그러나 두냐는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충고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아든 그는 잘못을 뉘우쳤고, 그의 부인 마르파는 눈물을 흘리며 두냐의 무고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후 마르파의 남동생 루진이 두냐에게 결혼을 신청하는데, 그녀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변호사 신분의 자산가와 결혼하면 법학도인 오빠가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한다. 편지를 다 읽은 로디온의 얼굴에 분노가 화산같이 타오르고 있다. 돈에 팔려가는 여동생의 결혼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가난한 탓으로 판단되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늦은 오후 6시. 낡은 셔츠와 형겅 그리고 도끼도 준비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알로나의 전당포로 들어갔다. 어떻게 왔느냐는 노파의 물음에 은담뱃갑을 가져왔다고 답한 그는 상자 안의 도끼를 꺼내 단숨에 알로나의 머리를 찍어 죽인다. 붉은 피가 컵이 넘어지듯 쏟아진다. 노파의 목에 걸린 열쇠로 트렁크를 열어 그 속의 금, 목걸이, 팔찌를 다치는대로 꺼냈다. 그런데 현장에 누군가 나타났다. 알로나의 여동생 리자베타. 언니와는 달리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 하지만 범죄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도 도끼로 죽었다. 전당포로 찾아온 코호와 페스트라코프는 전당포의 문을 열어보지만 문안에 고리로 잠긴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돌아간다. 이 틈을 타 순식간에 도망간 라스콜니코프는 도끼를 문지기의 집에 둔 후, 자신의 바지에 피가 묻은 곳을 잘라냈다. 그가 아는 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호출장이 당도했다.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라스콜니코프의 채무 변제에 관한 일 때문에 호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이 주고받는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예카테리닌스키 운하 주변의 공터로 가 땅을 파고 전당포에서 훔친 귀걸이와 목걸이들을 파묻었다. 그리고 유

마르파의 남동생 루진이 두냐에게 결혼을 신청하는데, 그녀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변호사 신분의 자산가와 결혼하면 법학도인 오빠가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한다. 편지를 다 읽은 로디온의 얼굴에 분노가 화산같이 타오르고 있다. 돈에 팔려가는 여동생의 결혼을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가난한 탓으로 판단되었다.



작가는 '법적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만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Dostoevskii

분열과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소설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罪 罰

일한 친구 라주마힌의 집에 찾아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와중에도 그의 이마는 열로 끓어오르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실신했고 깨어보니 친구 라주마힌과 하녀 나타샤가 옆에서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 조시모프는 실신한 그를 진료하며, 신문에 게재된 살인사건에 대해 라주마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살인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경찰서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으로 끝없이 도망가는 주인공. 그는 선술집에 만난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어가는 장면을 본 후, 장례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그의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준다. 주인공의 눈에 소냐가 들어왔다. 맑은 눈동자와 푸른 빛을 띤 순수한 영혼. 그녀는 아빠의 죽음을 배웅했다.

페테스부르크로 온 그의 어머니와 누이. 3년만의 해우였지만 그는 피붙이를 보기 꺼렸다. 피로하고 만사가 힘들다며 자신을 만나지 말아달라는 라스콜니코프가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다.

때가 왔다.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등장했다. 살인사건의 베테랑. 그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람 모두를 만났다. 단 주인공만을 빼고. 포르피리는 그에 대해 이미 다 알아봤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주인공이 작성한 「범죄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논문도 보았다. 논문은 평범한 사람은 법률에 순응하지만 비범한 사람은 모든 범죄를 행하고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말이다.

어느 날 로디온에게 정체 불명의 아이가 나타나 "살인자"를 외치며 도망갔다. 그리고 그의 악몽 속에는 살해당한 알료나가 나타났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찾아가던 사람은 소냐였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창녀가 된 소냐. 그녀의 발앞에 무릎꿇고 키스를 했다. 당신은 자기 몸을 판 죄인이지만 맑은 영혼이라고 말해줬다. 라스콜니코프의

눈앞에 성경이 보였다. 리자베타가 준 성경책. 소냐에 의하면 리자베타는 정직했다. 소냐와 함께 읽은 성경구절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이야기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녀를 떠나 예심판사 포르피리의 초대에 응한다. 때로는 범죄자를 체포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치하지만 보이지 않게 감시함으로써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 범인으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수사기법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해진다. 사실 포르피리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알아냈다. 로디온이 신경쇠약증 환자가 된 이유라든가, 피에 대해 물었던 일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아냈다. 라스콜니코프는 포르피리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평안한 밤을 보내지는 못했다.

그는 다시 그의 정신적인 안식처, 소냐에게 돌아갔다. 주인공은 자베타와 알로냐를 죽인 진범이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그말을 들은 소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엾은 분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변명했다. 활용할 수 없는 돈을 빼앗아 유익하게 쓰는 것은 하회적 선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존재인 노파를 죽였다. 나아가 살해는 자신이 '이'인지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자기실험이었다. 결국 그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였던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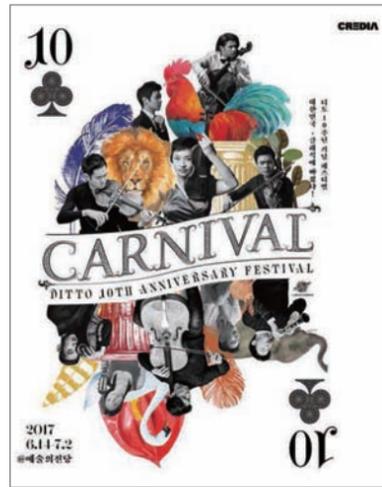
소냐가 그에게 간청했다. "네거리로 나가세요. 대지 위에 입을 맞춘 다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큰소리로 외치세요." 소냐가 그의 목에 십자가를 걸어주며 말했다. "기도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도하세요. 뉘우침의 햇살 비치는 곳에 죄는 없으니" 소냐의 사랑어린 설득에 주인공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났다. 징역 8년. 뉘우침과 함께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난 그는 오랜 범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는 자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작가는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벌'이 주어지므로 차라리 회개하고 형벌을 받아 영혼이 치유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한다.

누가 주인공을 자백하게 했는가. 포르피리의 법률적인 접근은 그를 끝없이 도망가게 했다. 그러나 소냐의 사랑은 그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게 했다. 물론 포르피리의 법적인 추적이 없었다면 주인공이 소냐의 품으로 안기지 않았을 것이며 그랬다면 그는 영원히 불안의 밤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작가는 '법적 정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만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분열과 대립이 극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소설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창**

그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 사람 모두를 만났다. 단 주인공만을 빼고. 포르피리는 그에 대해 이미 다 알아봤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주인공이 작성한 「범죄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논문도 보았다. 논문은 평범한 사람은 법률에 순응하지만 비범한 사람은 모든 범죄를 행하고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말이다.

카니발(Carnival)은 가톨릭계 유럽사회에서 시작된 민중적 축제이다. 무엇보다 연주하는 자와 보는 자를 구별하지 않았고, 가치 통념을 전도시켜 사회질서나 특권계급을 비웃었다. 오늘날에는 예전 형태의 카니발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신원리와 형식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재탄생되고 있다.



디토 10주년 패밀리 클래식 디토 카니발

“음악은 원래 함께하고 나누는 것”. 보다 많은 이들과 클래식 음악을 공유하고자 하는 앙상블 디토의 미션을 담은 디토 10주년 페스티벌 ‘카니발’(음악감독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는 6월부터 펼쳐진다. 이번 카니발은 한국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고전 중의 고전 음악이자 앙상블 디토 멤버들이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온 가장 친숙한 음악들로 구성됐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임동혁, 첼리스트 코티에 카뮈송, 클래식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그리고 뮤지컬 ‘헤드윅’과 ‘스프링 어웨이크닝’등의 연출가 김민정 등 스타들이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기간 2017.06.14.(수) - 2017.07.02.(일)
티켓가격 R석_5만원, S석_3만원
홈페이지 www.dittofe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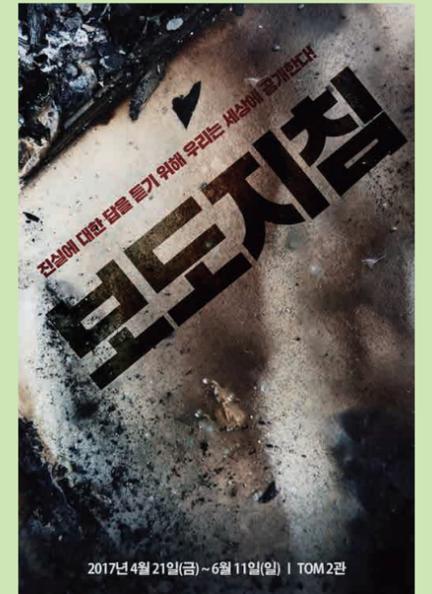
Music

play-acting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세상에 공개한다 연극 보도지침

연극 <보도지침>은 제5공화국 시절 정부가 각 언론사마다 기사 보도를 위한 보도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과 이를 세상에 공개한 한국일보 김주연 기자의 재판을 모티브 삼아 법정 드라마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당시 이 사건을 폭로한 언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됐고 9년 후인 1995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폭로 사건이 있었던 1986년 당시 이 사건은 ‘보도지침’에 의해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기자 김주혁 역에는 김경수, 이형훈과 더불어 7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는 봉태규가 캐스팅됐다. 월간 독백의 발행인 편집장 김정배역에는 고상호, 박정원, 기세중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장소 대학로 TOM(티오엠) 2관
공연기간 2017.04.21(금) - 2017.06.11(일)
티켓가격 5만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YOUTH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예술, 패션, 음악 등 동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유스컬처 (Youth Culture)와 청춘의 내면에 공존하는 다면적인 감정들을 조망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가 열렸다. <YOUTH - 청춘의 열병, 그 못다 한 이야기> 전시에서는 문화계 전반의 핫 키워드로 자리잡은 ‘유스컬처’ 신드롬을 일으킨 래리 클락(Larry Clark), 청춘 열풍의 주역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 패션디자이너 고샤 르부친스키(Gosha Rubchinskiy)의 화제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세계적 아티스트 28여 명의 대표작품 240여 점의 사진, 영상, 그래픽,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총망라되어 있으며, 미술관이 아닌 거대한 클럽에 온 듯한 독특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전시장소 디뮤지엄
전시기간 2017.02.09.(목) - 2017.05.28.(일)
티켓가격 8천원
홈페이지 daelimmuseum.org/dmuseum

Exhibition

감동적이고 운명적인 로맨스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2014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토니어워즈 작곡상과 오케스트레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공연이 될 때마다 관객들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이번 국내공연은 애절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옥주현과 섬세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박은태가 원캐스팅 돼 화제를 모았으며, 앙상블 또한 탄탄해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프란체스카’와 사진 촬영차 마을을 찾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칸케이드’의 가슴 시린 사랑을 그렸다.



공연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공연기간 2017.04.15(토) - 2017.06.18(일)
티켓가격 VIP석_14만원, R석_12만원, S석_8만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Musical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지난 3월 21일(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및 임원, 이형규 이사장 외 오수근 법전문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을 비롯해 다수의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현안사항 및 상호 협력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뒤이어 3월 29일(수) 개최된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에는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법전문 발전 방향 및 우수 법조인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

제6회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려

지난 4월 21일(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 제6회 대표단 방문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과 앞날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내 시설 탐방, 전남대학교 법전문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일정과 법전문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6회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초청 기념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25일(화) 한국법학교수회는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초청 기념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1부(강연)와 2부(토론회)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정재황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이 전체 사회를 맡았다. 1부 강연의 주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법학교육'으로 송상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맡았다. 이어진 제2부 토론회에서는 충남대 법전문 손종학 교수가 '로스쿨 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 -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시장의 준비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이경숙 변호사(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조정진 논설위원(세계일보), 이창수 대표(법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54회 법의 날 기념 석학초청 기념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원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원장

전공: 행정법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변호사시험(공법) · 사법시험 출제위원
 hkjung@khu.ac.kr

BOOK



형사법 사례형 · 기록형

형사법의 기본이론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연습해볼 수 있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최적의 수험서!



저 자 : 대표집필진 오영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수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공동집필진 24인

내 용 : 형사법 사례형(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기록형 문제 및 예시답안 제시

판매가격 : 30,000원

판매처 :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및 오프라인 서점 판매

헌법은 살아있다

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가?

저 자 : 이석연

내 용 :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풀어냈다.

판매가격 : 14,000원

판매처 :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및 오프라인 서점 판매



2017년도 한국은행 주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공모대상 :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개별 또는 공동(4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음
공모주제 :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
작성기준 : A4용지 20매 이상(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참조)
응모기한 : 2017.7.28.(금)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금융법규팀(04531)
문의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126, 7087)으로 문의

2017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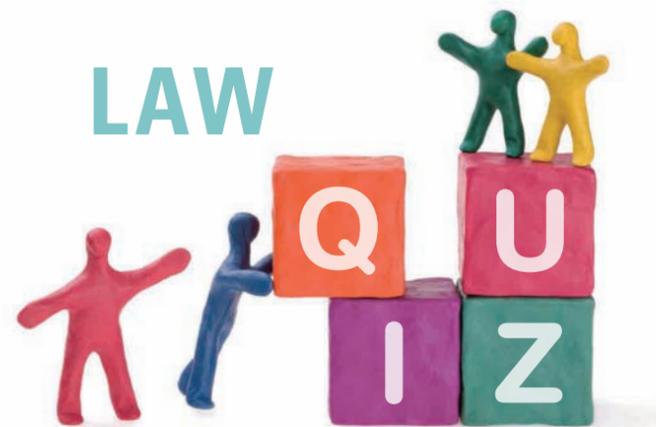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기간 : 2017.5.31.(화)까지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klaw.go.kr) 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우편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제출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보과 044-200-6574, 6579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공모주제 : 대학 지식재산 관련 자유 주제 (저작권 제외) 예) 4차 산업혁명, 기술이전, 지재경영, 경쟁법, 부정법, 표준특허, 국제조약 등
참가자격 :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참가
신청접수 : 2017.7.31.(월)까지
논문접수 : 2017.8.1.(월) ~ 2017.8.16.(수) 17:00
접수방법 : 연구원 공모전 홈페이지(www.kiip.re.kr)에서 참가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반팀 이은정 과장 02-2189-2657, aro@kiip.re.kr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5년도

제3차(10월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 ②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를 그 요건심사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④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납부나 채무변제는 모두 자신이 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각종 채무변제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어머니가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피해자는 법원과 딸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④ 피해자에게 부동산 형질변경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속이고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는 배임죄에 흡수되므로 배임죄만 성립한다.

3. 이혼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판상 이혼에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 이혼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심소송은 종료된다.
- ③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임신 중인 경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일시적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